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1호 2011년 11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1225 W. 190th.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Home Coming Day' 행사에 참여한 동문중 일부가 관악 캠퍼스에서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정철영(농대 77) 모교 학생처장, 한 사람 건너 이진수(휴스턴) 동문 부부, 윤근환(농대 50)동창회 부회장, 임광수 총동창회장, 김은종 미주 총동창회장, 이진구 미주 총동창회 전 회장, 한사람 건너 서치원(LA) 동문 부부, 공대식 동창회 부회장

어려울 것이다. 학생회관에 들러 음식과 커피를 마시는 사이 학창시절이 절로 연상돼 가슴이 뭉클했다. 'Home Coming Day' 행사에는 무려 2천500여 명이 모여 그야말로 '운집(雲集)' 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재학생 후배들의 밴드와 댄스 등 각종 환영 이벤트는 흥이 절로 나게 했다. 임광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오연천 총장님의 따뜻한 환영도 모교에 대한 애정을 더욱 두텁게 했다.

5박6일의 전국 관광여행은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경주 등 문화 사적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새롭게 정립한 계기가 됐다. 집사람(서수산)은 '남편 덕분에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했다' 고 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한 언제라도 이같은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 <관계기사 16면·편집주간>

**미주 총동창회 2012 Alaska Cruise**  
관계기사 23·광고 32면

제32회 Home Coming Day 고국 관광여행

## '母川回歸' 이심전심 가득했던 여정 모교 다양한 이벤트, 경주·제주도 등지 여행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 고국의 북동쪽 동해안 일부 하천에는 산란을 위해 모여드는 수백~수천마리의 연어들로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이들은 알에서 깨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하천을 찾아 수만 km 떨어진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차가운 북빙양에서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모천회귀(母川回歸)', 이 한마디 말로 표현해내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의 모교 관악 캠퍼스에서 마련한 'Home Coming Day' 행사에서 이런 모습을 연상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태평양을 건너온 동문들 모두 '모천회귀'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가득했던 여정이었을 것이다.

▶문세화(법대 57·하와이) 동문 = 지난 1972년도에 이민와 늘 그리기만 하던 모교 관악 캠퍼

스에 직접 와보고 그 웅장함에 놀랐다. 그리고 아주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아늑한 고향에 와 있는 기분을 느꼈다. 모교란 언제나 어머니 품안처럼 따뜻한 곳이라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라고 싶다. 관광지 5박 6일을 여행하고도 아쉬운 나머지 서울의 동기생 33명이 남이섬과 4대강 사업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이천 수증보는

거대한 학이 날아가는 형상에 알을 품고 있는 형상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어 동기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모두 다 한번씩 관람시킬 필요가 있다.

▶서치원(공대 69·남가주 동창회 차기 회장) 동문= 지난 79년 이민은 후 처음인 관악 캠퍼스라 너무 가슴이 벅차 행사 전날 찾아가 정문부터 꼭대기까지 곳곳을 살펴봤다.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모교 캠퍼스가 이렇게 광대하고 멋있을 줄 몰랐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규모가 장대하고 시설이 좋은 곳은 찾아보기

### 모교 의대 박성희 교수팀 당뇨병 근원치료 가능성 기술 개발



모교 의대 병리학교실의 박성희(64) 교수팀이 돼지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이용해 당뇨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뇨병환자는 세계에 3억 명, 국내에만 350만 명에 이른다. 현재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혈당(血糖)을 조절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평생 안고 사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희 교수팀은 ←박성희 교수가 이번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돼지의 췌도(膵島랑게르한스섬) 세포를 원숭이의 간 혈관에 주입해 7개월 이상 거부반응 없이 혈당이 정상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숭이의 혈당이 평균 450mg/dl 이상에서 정상 범위인 83mg/dl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7개월간 유지됐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다. 6마리의 다른 원숭이들도 돼지 췌도 이식 후 20일~4개월이 경과했지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돼지 췌도가 원숭이 몸 속에서 제 역할(인슐린 분비)을 한다는 뜻이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업적은 이식 거부반응(Graft Rejection)을 해결했다는 점이다.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이식된 장기(臟器)를 외부 침입자로 간주해 집중 공격하기 마련이다. 사람끼리 간이나 심장을

이식하는 동종(同種) 이식에도 거부반응이 생겨 오랫동안 면역 억제약을 복용해야 한다.

박 교수팀은 돼지의 췌도를 원숭이가 거부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개발해 투여했다. 항원 선택적 면역억제제(MD-3)와 보조 면역 억제제로 구성된 면역조절 항체가 그것이다.

연구팀은 돼지 췌도 이식 후 6달이 지났을 때 면역 억제제 등 모든 약물 투입을 중단했는데도 혈당 수치가 정상상을 유지한 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

박 교수는 "다른 종의 동물끼리 장기를 이식하고 면역 억제제 투입을 중단한 뒤에도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거부반응 때문에 이식된 췌도 세포가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다 녹아버리기 일쑤였다.

<2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기획·특집 한미 FTA 쟁점과 과제/ 그레도 읽는게 많이/ 한미 FTA EU가 증명.....4~5면

종합 활동 · 모교 · 시사만평



반기문 UN사무총장

세계 가장 영향력 큰 인물 38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8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38위는 지난해 41위보다 3계단 오른 것이다.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0인'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 등을 들면서 이 잡지는 "미국이 여전히 세

계 최대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제와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는 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2위로 밀어냈던 중국의 후 주석은 올해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으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면서 3위로 떨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작년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푸틴과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밀려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12위에서 59위로 추락했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에 독일

의 막강 경제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을 주도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위에 올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올해 5위에 올라 경제계 인물중 가장 높았다. 포브스는 게이츠 자선재단이 후원한 말라리아 백신이 최근 중요한 임상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작년(10위)보다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6위)과 교황 베네딕토 16세(7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8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9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10위)가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지난해 40위에서 무려 31계단을 뛰어올랐다.

포브스는 "저커버그는 미 중앙정보부(CIA)가 6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7년 만에 이뤘다"며 "바로 8억 명이 생각하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31위였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7위로 떨어졌다. 포브스는 "김정일의 중병설이 계속되고 있지만 2천500만명이 굶주리는 은둔국가에서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명말음 동문

2011년도 일본 사법시험 합격

명말음(27·사진 가운데) 동문이 일본인도 합격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일본의 사법시험을 최근 최종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국인은 명말음 동문 외에도 김영민(29·왼쪽)·조우상(26)씨 등 3인으로 이들은 "일본 법조계에도 '한류 붐'을 불러일으키겠다"며 주먹을 굳게 쥐어 보였다.

2004년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실시된 사법시험에서 한국인 합격자가 한 해에 3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인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일본 사법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주인공들 중 명말음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대 로스쿨을 나왔다.

명말음은 "모교를 졸업한 뒤 일본 대중음악과 소설을 좋아하다 일본어를 독학하게 됐고 결국 일본 사법시험까지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끌리는 대로 살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김영민씨는 성균관대 법대 졸업 후 올해 3월 게이오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조우상 씨만 일본에서 게이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씨는 "2005년 고베대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일본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됐다. 일본에서의 짧지만 소중한 경험이 인생진로를 바꿨다"고 했다.

조 씨는 "부친이 일본과 무역업을 하고 있어 일찍부터 일본 문화에 젖어들었다"고 말했다.\*\*\*



시사만평

서울대에 일본학 과정 설치

동경대도 곧 한국학과 설치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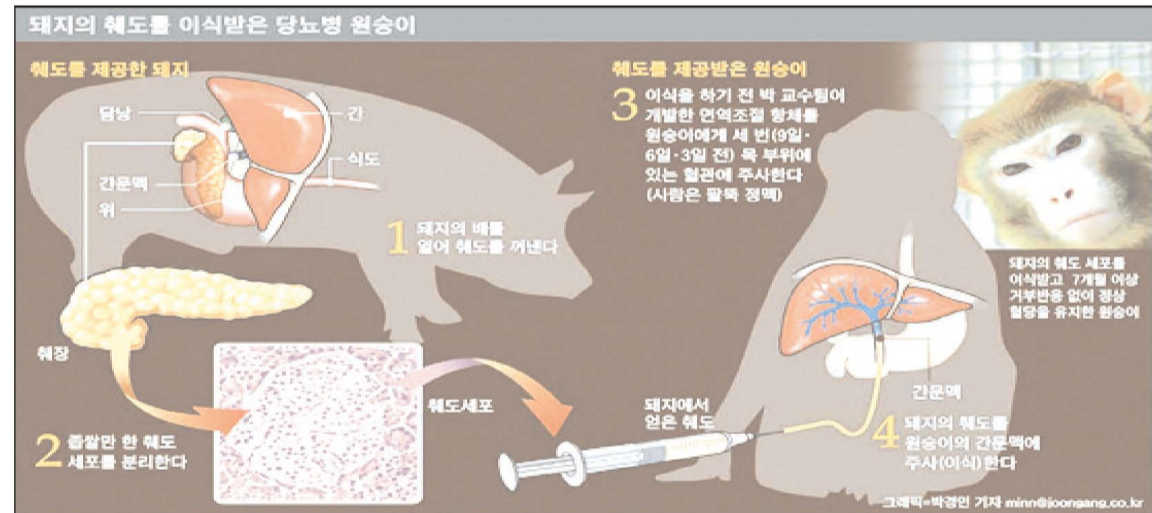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1면에서 계속>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췌도제공 뇌사자가 극히 적은 데다 산 사람의 췌도를 이식할 경우 제공자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져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 돼지 췌

도를 사람한테 이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데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본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돼지들은 서울대에서 5년 이상



무균(無菌) 상태로 사육해 감염 위험성이 낮으나 돼지한테는 증상이 없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바이러스 등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13년께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 3~5년 내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실험의학저널(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국제 의학계는 박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연구논문이 의학 분야 권위지 '실험의학저널(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온라인판에 나오자마자 즉각적인 논평이 나왔다.

지난 10월 23일 미 마이애미에서 열린 2011년 세포 이식학회·세계 이종 이식학회 합동회의

에서 에마누엘레 코지(Emanuele Cozzi) 학회장은 개회 연설에서 박 교수의 연구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돼지 췌도 이식이 획기적인 면역 거부 억제 신약이 나왔고 향후 이종(異種) 이식은 유럽연합·미국·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박성희 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해 극찬을 한 바 있다.\*\*\*

차 례	동문 시 감상(꽃잎은 저도)	14. 오늘따라 왜 그녀가 예뻐 보일까/ 암 환자로 살아가기> 수술 3년차, 검사 전 근심걱정	20. 미주재단·모교소식/ 2012년 미주 총동창회 Alaska Cruise 안내
3. 선진국 도약은 부패 척결부터/ 대한민국의 가로막는 4개의 큰 문제	7. 미 대륙횡단 자동차 여행 8~11. 미주 동문 동정	15. 김성수 동문 McKinley봉 등정기<2> 하산하던 고령산악회 팀 1만피트 지점에서 만나	21. 고국 동문 동정
4. 한미 F A 쟁점과 과제	12. 한국 암 환자 멀리서도 티가 나/ 들어는 보셨나요? 와인 폭탄주	16-18. 지역 동창회 소식	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록
5. 애국과 매국 사이에서/ 한미 FTA, EU가 증명/ 그래도 얻는 게 더 많다	13. 범창일화<3> 목소리만 크다고 소송 이기나/ 동문 시 감상(푸르던 소나무 아래 어린이들)	19. Home Coming Day 고국관광을 마치고	24-29. 동문 업소록
6. 동창회보를 읽고/ 금강에 실어리랏다/			30. 동창회 조직과 각 지부 회장단
			31-32. 광고



특별기고

이슈 시국 칼럼

선진국 도약은 부패척결부터



송종환(문리대 64) 자유시민연합 공동의장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147개 신생국 중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변영, 발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이고 작년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반열에 오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는 국가가 됐다.

그러나 MB정권 후반기인 얼마 전부터 대형 부패 스캔들이 보도되고 있어 마치 한국 사회에는 부패가 일반화 된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든다.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문턱에서 뒹굴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낮은 부패인식 지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부패인식 지수, 홍콩·일본·대만보다 뒤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정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데 주목한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이 세계은행 퇴직 후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 전 세계 82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NGO)국제기구다.

이 기구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산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기구가 2010년 10월 26일 발표한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9.3점/1위)·홍콩(8.4점/13위)·일본(7.8점/17위)·대만(5.8점/33위)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연일 터져 나온 교육 비리와 특권층 비리는 물론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 저축은행 사건, 금융감독원·국세청 간 부 뇌물 수수 사건 등 권력형·정치형 부패 사건 등을 감안할 때 '국제투명성기구'가 하반기에 발표할 2011년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작년의 5.4점 아래로 더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부패의 특징과 부패방지 제도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한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권력형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고 부패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패의 구조적 현상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정부의 규제가 있는 곳에서, 계약 관계에서, 모든 사업과 예산 집행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하며, 분야별 부패사태로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기업 부패(탈세, 비자금), 법조 및 경찰 비리, 교육계 비리, 지방단체의 비리, 식품위생·세무·건축·조달발주 비리 등을 들 수 있다.

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권력형 공직 부패에 대한 관대한 법적 체계, 관료제의 폐해로 인한 부패, 각종 행정규제와 인·허가제를 통한 부패,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부정부, 법령과 제도의 비실효성, 이익단체 등에 의한 입법적 부패, 부패방지에 대한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국민의 낮은 의식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과 기구가 동태협력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집중력이 낮아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 제정, 시행해 왔으나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쳐졌다. 이 법령도 공직자들의 뇌물 등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부패방지법에 의거하여 부패 전담기구로 2002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가 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부패제도 개선 권고나 신고를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아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정거장 역할만 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 자체의 부패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부패 방지 전담기구가 있으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 등의 처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뇌물 수수에 대한 엄격한 형과 벌금 병과로 부패 근절=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국가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 달러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GDP 규모가 약 1조 달러로 세계 14위이다.

2010년도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5.4점으로 2010년 OECD 30개국 평균 7.0에 비하면 1.6 점 낮은 편이다. 이는 1인당 GDP 약 7,

대한민국 가로막는 4개의 큰 문제



서경석(공대 67)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울 조선총교회 담임목사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 조선총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선진화 시민행동, 나눔과 기쁨, 기독교 사회책임, 유권자 시민행동이라는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세 번 징역형을 살기도 했고 지난 80년대 말에 경실련을 창립, 초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요.

그리고 지금은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라는 글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네 개의 큰 문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 네 개 문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서 해결의 길을 함께 찾기 위한 것입니다.

▶친북(親北) 또는 중북(從北) 좌파 문제는 첫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친북, 또는 중북 좌파들의 문제입니다. 친북(중북)좌파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흔들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지금 이들 친북(중북)좌파 세력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친북(중북)좌파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의 앞날은 위기에 빠지고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500 달러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부패인식 지수를 가진다면 1인당 GDP는 2만7천 달러 이상이 되고 GDP도 1조 3,5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이는 2010년도 세계 10위 경제국인 러시아(1조 4,769억 달러), 9위인 캐나다(1조 5,367억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OECD 평균인 7.0점을 넘어 싱가포르 수준의 9.3점 청렴도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4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패 실태만 개선하면 국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향해 친북(중북) 좌파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비판하거나 낡은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지의 경험을 생생하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의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야가 앞으로든 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브라질·체코 등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포퓰리즘이 잘못되었나를 우리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의 싸움은 시민의 몫'이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여야 상관없이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서야= 세 번째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와 독점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서야 하는 일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재개발 정책의 불공정과 모순 때문에 원주민의 85%가 쫓겨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대형업소는 1.5%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은 3-4.5%인 이 엄청난 불공정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막대한 로비력 때문에 도박이 계속 조장되어 도박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져 가고, 전관예우로 인해 '무전 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보의 이슈도, 보수의 이슈도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정에 나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도적 정책 실행=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궁지를 지낸 인간으로 살기 위해 인도적인 정책을 채택해서 실행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쓰고, 북한 동포를 돕고, 조선족 동포를 포용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수진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는 민감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슈에는 매우 둔감한 편입니다.

진보진영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 하는 애국자라면 이 네 가지 이슈에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서울고 졸업(1966년), 서울공대 기계공학과 졸업(1971년), 미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M. Div. 1984), 미 유니온 신학교 석사(S.T.M 1986),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수감, 75-81년 한국기독교총연맹 간사,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간사, 한국교회사회 교육선교협의회 총무, 1979-80년 YH사건 및 동일방직 사건으로 투옥, 1988-89년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서리, 1989-95년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경실련) 초대 사무총장, 2001-05년 경실련 중앙위 의장, 1999년~현재 서울 조선총교회 담임목사, 96년~현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집행위 의장, 05-06년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04년~현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05년~현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저서: 21세기 기독교인의 사명과 비전(95년), 꿈꾸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96년)의 다수.

하여 유기 정역과 함께 벌금 50 배 이상의 벌과, 10년 이상 자격 정지,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엄격한 제한, 신고자 보호 등을 입법하여 엄격히 이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경부고, 서울대 외교학과(학·석사), 미 플레처 국제법·외교대학원(석사), 한양대(박사), 외교관 등 30년간 공직,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 동문 제현들이 기고해주시는 모든 글들은 동향회보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특집

한국과 미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쟁점과 과제



강명구(사대 88)  
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

▶초미의 정치쟁점=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비준이 한국 국회에서 초미의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상하 양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비준 작업이 일단락됐고, 이제 협정 발효를 위한 한국측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이전, 18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야당들은 강력 반대하면서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쪽은 이번 FTA비준을 통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가진 통상대국이 될 것이므로 비준을 미루는 건 득보다 실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한 단계 진보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또한 서비스가 있을지 모르나 내수 부문, 특히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커 수출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고, 결국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갈려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더 이익=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일단, 한·미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측은 미국임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미 FTA가 매년 미국의 대한 수출액은 100억~11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7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서 협정체결 서둘러=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불 보듯 뻔히 보이는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걸까?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한·미 FTA는 애초 노무현 정부,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좌파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우선 선제적 전략(Preemptive Strategy)의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어차피 FTA가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가

자라는 의도였지 않나 싶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GATT에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 그리고 최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 순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주의는 진전이 더딘 대신, 국가 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를 보다 포괄하는 다자협상인 Doha라운드가 오랫동안 큰 진전이 없는 동안 개별국들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히 맺음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무역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경쟁해왔다. 노무현 정부와 이어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추세에 보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도 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응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한국 경제 경쟁우위도 커= 물론 한국도 경쟁우위를 갖는 산업 부문이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통신기기, 전자·기계·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분야를 능가하는 부문이 존재한다. 이런 분야들은 한·미 FTA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혜산업들인 것이다.

▶미국 서비스 무역 경쟁 우위도 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무역 비중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00년의 대미수출 비중은 22%에 달했지만 10년이 지난 2010말 현재는 10% 줄었다. 이에 반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소위 말하는 중화권-중국·홍콩·대만-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0년말 현재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서비스 무역 경쟁 우위도 커= 그렇다면 미국이 더 이익=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일단, 한·미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측은 미국임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미 FTA가 매년 미국의 대한 수출액은 100억~11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7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선제적 전략(Preemptive Strategy)의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어차피 FTA가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가

는 사실 경쟁력 증진이 아니라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비교우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분야 중심의 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급효과에 솔직해야=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한·미 FTA는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조치다. 수혜산업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피해산업의 파생이 불가피하다. 농업이나 서비스업 종의 경우는 특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피해를 보게 될 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 대책 후 비준”을 요구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적 이익수렴(Interest Aggregation) 및 표출(Representation) 과정이다. 이들의 걱정과 염려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대응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제발전 모델을 FTA 후 산업구조개편서 찾아= 사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 모델에 근거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내수 산업분야,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는 미국의 발전된 서비스업, 특히 금융·회계·텔리커뮤니케이션·교육·의료부문의 국내 산업부문에 경쟁을 촉진시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했지 않다. 크게 보아 경제발전 이후의 경제발전 모델을 미국과 FTA를 통한 산업구조재편에서 찾았던 것 같다.

▶비교하위 분야가 숙제= 그러나 문제는 현재 미국과 산업경쟁상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분야가 5년이란 관세철폐 유예기간에 미국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한국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 전환자금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과 유망상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하지만 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 피해 산업부문이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거나 또는 피해산업 종사자들이 성공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으로 흡수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비스업의 경우 그 산업의 성격상 5년이라는 단기간에 미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ISD반대는 여야에 따라 바뀌어= 쟁점이 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위정자들은 그 위험성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뒤

바뀌어 있다. 왜 위정자들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은 부족한 채 말이다. 이런 정치리더십의 부재는 한·미 FTA와 관련된 냉정한 전망과 대책보다는 과장된 기대와 우려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치권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사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공공정책 영역, 즉 연금이나 의료보험, 기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와 관련해 한·미 FTA 이후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파급효과에 솔직해야=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한·미 FTA는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조치다. 수혜산업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피해산업의 파생이 불가피하다. 농업이나 서비스업 종의 경우는 특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피해를 보게 될 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 대책 후 비준”을 요구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적 이익수렴(Interest Aggregation) 및 표출(Representation) 과정이다. 이들의 걱정과 염려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대응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ISD반대는 여야에 따라 바뀌어= 쟁점이 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위정자들은 그 위험성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뒤

바뀌어 있다. 왜 위정자들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은 부족한 채 말이다. 이런 정치리더십의 부재는 한·미 FTA와 관련된 냉정한 전망과 대책보다는 과장된 기대와 우려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치권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사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공공정책 영역, 즉 연금이나 의료보험, 기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와 관련해 한·미 FTA 이후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중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한국사회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획특집

한국과 미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애국과 애국 사이에서”



송호근(문리 74) 서울대 교수

자들의 판단도 그랬다. 경제주권을 제약하는 것은 ISD가 아니라 WTO다. WTO가 판결하면 국가정책을 철회해야 하지만 ISD는 개별 기업의 권리보장 메커니즘이다. ISD가 '경제헌법'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견해다.

유럽과 일본 모두 도입한 ISD를 유독 미국이 악용할 것이라고 고집하는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탐욕스러운 월가 자본이 한국의 공공정책과 자본시장을 집어삼킨다? 그건 과민증이다. 미국의 대형 수퍼가glomerat을 동맹 파괴한다? 글썄, 미국의 최강 유동업체 월마트는 철수했고, 코스트코는 양재동 구석에 몇 년째 처박혀 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이 ISD보다 더 위협적임을 그들은 잘 안다. 한국은 정치부패 때문에 투자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불리미아나 콜롬비아가 아니다.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은 '단단한 사후대비책'을 전제로 한·미 FTA에 적극 찬성했다.

그렇다면 문외야 웅한 경제·국제법 학자들은 애국노인 셈이다. 많은 애국 교수가 많은 학생을 미래의 애국노르 만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의원 35%, 151명은 왜 한·미 FTA에 반대표를 던졌을까? 제조업 강국 한국으로 일자리가 이전될 것이 두려운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 25%, 80명은 왜 반대하고 그중 12%, 40명은 왜 강경투쟁파로 나섰는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 미칠 충격 때문이다. 미국은 일자리 이전을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충격을 치유할 묘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다. 진정 '미국의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끼인 한국이 'FTA 폐기론' '잠정적 유보론' 말고 달리 생존할 길을 실효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국론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것이 애국은 아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없었다면 이 급속스러운 변신을 단행했을까 하는 질문도 정치인들에게 부질없었다. 그래도 주문을 해볼 수는 있겠다. 중·일·리에 둘러싸인 한국의 결단은 무엇인가?

양 날개로 나는 것. 한·EU FTA가 오른쪽 날개라면, 한·미 FTA는 왼쪽 날개다. 잠재 날개를 독수리 날개로 교체하는 21세기 '신조선책략'이다. 멀리 보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통일후 허허벌판 북한에 무슨 돈으로 도로·주택·공장을 지을 것인가? 미국과 유럽의 자본, 기술, 지식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

11일 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미·일 FTA 참여를 선언했다. 세 가지 명분이었다. 한국으로의 일자리 이전, 내수시장의 노쇠화로 인한 산업 침체, 약화되는 미·일 동맹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강경 투쟁론자들로 붐볐다.

“한미 FTA, EU가 증명한다”



안호영(문리 72) 주 벨기에 EU 대사

한·미 FTA와 한·EU FTA는 내용·협약체질 상대의 경제규모·산업수준 등에서 비슷하다. 한·미 FTA 비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한·EU FTA도 비난받아야 한다. 한·미 FTA의 부작용도 한·EU 관계에서 이미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음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표 120일 된 한·EU FTA가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면 한·미 FTA에 대한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쉽게 알 수 있다.

FTA의 교역 증가가 확실하다. 만일 FTA가 없었다면 재정위기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EU로의 수출은 훨씬 감소했을 것이다.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 제품(+87%)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관세를 변동없는 상품수출은 41% 감소했다. EU수출 전체 202개 품목중

137개(68%)의 수출이 증가해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다. 특히 금형(+172%), 공작기계(+134%), 완구(+112%), 축산가공품(440%)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수출 역시 대폭 상승했다. FTA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EU FTA 발효후 무역수지 흑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에 감소(49억1천만→10억7천만달러)하기는 했다. 이는 FTA상관세를 변화가 없는 선박 수출 감소(40억6천만→19억3천만달러)나 EU의 항공기 수입증가(7천만→7억7천만달러) 등에서 비롯된다.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교역규모와 흑자폭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 경쟁국들이 앓다뉘 EU와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인도·캐나다·싱가포르 등은 이미 EU와 협상을 진행중이고, 일본·태남·인도네시아 등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모두 FTA로 교역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 이들은 EU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브뤼셀에서 만나는 EU 관계자나 기업인은 한·미 FTA 발효 여부나 시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에서 미국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

이 길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EU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서둘렀던 것은 한·미 FTA 때문이다. 1차 협상시 EU 협상 대표는 협상을 빨리(In a pali pali manner) 하자고 했다. 그 속타는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은가? FTA가 없을 경우 경쟁국이 시장을 뺏기고 FTA의 혜택은 경쟁국이 동일한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고비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해답은 이미 한·EU FTA가 보여 주고 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사실 앞에서는 무력하다.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유럽인들이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 스스로 한·미 FTA를 무산시켜 버린다면 EU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걸음로 무슨 말을 하든 속으로는 미소지을 것이다. 그들이 웃을 이유를 생각하면 해답은 명백하다. FTA는 장밋빛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다. 혜택은 한시적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루빨리 한·미 FTA를 비준해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누리는 혜택을 미국 시장에서도 누려야 한다.

<필자 소개> 경기고와 서울대의교대학을 거쳐 미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석사. 외무고시 11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통일외교부조정관을 거쳐 지난 3월 주 벨기에 EU(유럽연합) 대사로 근무중이다.

“그래도 얻는게 더 많다!”

이봉구(인문대 75)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최근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양국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줄 것”, “세계 최대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한다. 반면 야당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 “피주기 협상”이라며 맹비난이다.

▶2007년 내용보다는 불리= 한국의 반응이 미국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 협상내용이 지난 2007년 6월 양국 합의 내용보다 한국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협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미국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저지도가 추락중인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큰 호재를 만들어낸 셈이다.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얼마 전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협정문을 코칠 수 없다고 천명해 놓고 결국 재협상으로 이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및 발인한 태세도 우리 측이 밀린 협상임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타결 내용이 미국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은 3년 전 협상 내용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지, 한·미

FTA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내용이 다소 후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 필요는 없다. ▶협상 자체 잘못은 아님= “협상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은 더욱 무리다. 이번 협상의 내용은 이렇다.

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측이 불리고 있는 관세 2.5%의 철폐 시기를 3년(3000cc 이하는 즉시)에서 대기량에 관계없이 4년 후로 늦추고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미국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는 국내 기준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미국 측의 최대 관심 사안인 자동차 부문에서 과감히 양보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로선 손해임이 분명하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를 2년간 연장하고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등 특혜 얻어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문 양보에 대한 대가다.

▶자동차 업계가 오히려 환영= 야당에서 공격적·대국적 협상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 균형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의 수지 타산만 계산하면 틀린 지적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비판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본다는 자동차 업계가 추가 협상내용에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다. 승용차 관세 철폐 시한이 늦어짐에 따른 이익 감소보다 조속한 협정발효로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와 경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인기 떨어졌던 점을 보면 이런 자신감은 근거없는 게 아니다.

협정 발효로 관세가 대폭 내려간다고 해도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잘 팔리는 일은 힘들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이번에 추가로 양보받은 부분의 혜택을 잘 살려 외산 등 국내 산업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국민 이해 돕기다.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야 하고, 야당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길인지 정치권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기고 · 독후감 · 수상 · 시

### 동창회보를 읽고



정원훈(상대 38)

미주 동창회보 지난 9월호(제 207호)는 '남가주 동창회의 Bishop관광지 탐방기'로 첫 쪽을 열었다.

평소 가까이 두고도 지나치곤 했던 이곳에서 여러 동문들의 이름이 사진과 더불어 게재돼 마치나 자신도 그 날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했다.

오랫동안 가져 동문으로 인식했던 공대 박현성 동문의 실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던 일화는 너무 재미있고도 감격적이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가. 주미 대사인 한덕수 동문이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있었던 9.11 추모 콘서트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의 깜짝 쇼에 온극장이 환호의 도가니가 됐다. 서울대 정신의 좋은 발상이었다.

한 대사의 기사에 이어 부모님들이 탐낼만한 신부감으로 났던 김태희 동문의 아릿다운 자태가 실렸다.

9.11테러 발생 10주년을 맞아 동창회보가 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과거 그 곳이 근무처였던 지인수(상대 59) 동문의 감회가 각별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재영(농대 62) 동문이 이 사태로 여행 도중에 겪은 불편했던 기록도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는 데 적절한 도움이 됐다.

이들의 글은 Prologue였다. 뒤를 이어 김창수(약대 64) 동문의 기고가 주문(主文)처럼 보인다.

'9.11사태의 경제적 충격'은 이번 동창회보의 압권이다. 우리 동문만이 해낼 수 있는 대물변사태의 손익계산서로 재독을 권하

고 싶다.

할리 문(USC기대 교수)이 뉴저지에서 당한 9.11사태, LA의 우리들도 TV에서 그 광경을 되풀이해서 보았다. 옆집에서 변을 당한 할리 문의 당혹감이란, 짐작이 간다.

박평일 동문(농대 69)의 '마지막처럼'은 잔잔한 서정시다. 그가 참석한 친구 부친의 약력을 약간 바꿔 본다.

'1920년생, 10년 전 부인 사망, 2남2녀, 손자녀 7, 증손 5'

실은 이것이야 말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나도 이제 박 동문 친구 부친의 하관식에서 친구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엿듣는 상황을 그려본다.

"우리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을 생각해 볼 차례 같다.

'마지막처럼' 밑에 '아버님의 일생을 생각해봅니다'라는 글이 있다. 이시성(공대 60)동문의 글이다. 아버님을 보내고 보니 그의 자애에 넘쳤던 생애를 반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수웅(의대 55) 동문의 '홍난파 70주기'는 한 마디로 감동이다. 그의 이름을 듣고 자란 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와 같은 천재가 있었기에 우리의 민족 정신이 백백히 이어진 것이다.

김친애 등의 동장이 한 동문의 칼럼을 더욱 값지게 한다. 그런 중에도 부인이 종로서에서 한 애원이 처절하다.

"이 분이 몸이 허약해서 그러니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 안되나요?"

홍 부인의 가냘픈 호소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며 가라앉지 않는다.

김일훈(의대 51) 동문의 '러시아 방문기'는 2개월 전부터 연재된 것이었다. 이 달에도 그들의 개혁(Perestroika) 실태의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런 상태를 유래한 정기스칸의 지배, 노마노프조의 Czar시대의 농노제도 등 김 동문의 기록은 흥미진진한 역사를 펼쳐낸다.

톨스토이·도스토이예프스키·차이코프스키 등 위대한 근대 러시

아의 인물들을 들면서 김 동문은 러시아인의 깊은 뿌리를 상기시켰다. 독자들도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의식 저변일 것이다.

이상희(인문대 85) 동문의 인류학 칼럼 역시 흥미가 넘치고 있다.

'Ich bin ein Neandertar'은 "내 경우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

원시 침략자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을 어떻게 말살했는지 확실치는 않다. 그런 중에도 네안데르탈의 여성들은 살아 남았고 그들의 피는 넓게,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 핏속에도 울려들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핏줄기에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협량(狹量)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홍현표(외교 84) 동문의 '암환자로 살아가기'는 감사를 드린다. 홍 동문은 우리를 대신해 암환자로서의 공경을 겪어오고 있다. '암 덕분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 행복하다'는 동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불러넣어주고 있다.

정연진(인문대 81) 동문의 '베이징 견문록'에서 '중국 공산당은 진재할 것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를 위해 복경의 환경, 나무 한 그루 없는 자금성, 아직도 살아 있는 마오쩌둥 등을 소개한다. 56개 타 민족을 거느린 92% 한민족 국가, 실은 근대 청나라 때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된다.

'애신각라(愛新覺羅)'라는 성을 갖고 있던 청나라 왕실, 그들은 자기네 말을 거의 읽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 이어진다면 '오늘의 중국'이 궁금하다.

김기태(문리 55) 동문의 'USA의 민주정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숙제다. 현실을 눈앞에 보며 한 번은 손뼉을 치고 또 한 번은 의문과 걱정을 앞세운다.

9.11사태, 국가 부채, 워런 버핏의 세금론, Democracy의 형태 등을 터쳤다. 동문 뿐 아니라 여러 동문들의 언급이 이어졌으면 한다.

동문 동정란의 '은행 이야기'는 오래 전 일을 떠올리게 한다. 찾는 가게마다 냉대였다. 산호세, 실리콘 밸리, 대안의 버클리, 찾아가는 곳마다 보기 좋게 거부 아니면 반감이었다.

그런 곳에 은행을 열었다니 그 댓가는 즉각적이었다. 현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책사(策士)·모사(謨士)들의 조광(躁狂)이 불꽃뒹었다.

마침내 은행은 도산하고 말았다. 나는 그들 끝들이 꽃는 배기지를 향해 노상에 던져졌다. 그런 곳에 김동인 동문이 한미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지만 행운을 빈다.

같은 쪽 새크라멘토 한인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배수혜 동문이 소개됐다. 몇 개의 외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배 동문의 앞 날이 양양하다 할 것이다.

성가풍의 가야금 작곡집을 낸

### "금강에 살어리랏다!"



이원익(문리대 73)

'금강에 살어리랏다 금강에 살어리랏다/ 운무 데리고 금강에 살어리랏다/ 흥진에 썩은 명리야 아는 체나 하리요/ 이 몸이 식어진 뒤에 혼이 정녕 있을진댄/ 혼이나마 길이길이 금강에 살어리랏다/ 생전에 더럽힌 마음 명정같이 하과제'

요즘 나온 글이나 노래는 많지만 금강산을 읊은 것이 어디 이은상의 이 <금강행> 뿐이랴?

한말 개화 이후의 눈에 띄는 것들만 보더라도 최남선의 <금강예찬>이 있고 이광수의 <금강산유기>가 있다. 정비석의 <산정무한>은 우리가 배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고 문일평의 <동해유기>도 지나칠 수 없는 글이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이 읊은 수많은 한시와 기행문과 가사문학이 있고 더 오래 고려시대의 글들도 더러 남아 있다.

시와 문장만이 아니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많은 그림들이 전통적인 산수화와 민화의 수법으로 그려졌다. 그 봉우리와 골짜기, 소용돌이치는 구슬같이 맑은 소며 천길 물벼락이며 비방이며, 금강산은 수많은 민담과 설화문학의 무대가 돼 노래로 불리고 형상으로 빚어지기도 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할지라도 만약 금강산이 없었더라면 고국의 전통 예술은 소재의 빈곤으로 큰 구멍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묘사 와서는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쳐 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금강산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성지라는 점이다.

금강산에서 불교를 빼 버린다면 유회자 동문의 노고도 주목할 만하다. 그 덕분에 가야금의 대중음악에의 접목이 추진될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김승태(의대 63) 동문이 헬스 오소리티 위원에 선임됐다. 혁신적인 전 주민 보험제도라는 하와이 지역 보험 구상이 김 박사 등의 노력으로 알찬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대사관 한국 교육원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 소은주 동문이 임명됐다. 빛나는 업적이 기대된다.

임이섭(미대 54) 동문의 '자연찬미전'은 선택이 아주 좋아 보인다. 또한 평화기원 전시회는 아주 감동적이다. 시카고의 표창은 모교의 명예이기도 하다.

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금강산이란 이름 자체도 불교에서 온 것으로 화엄경에 이르기를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하였다.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하지만 영어 값 비싸고 단단한 그런 광석이 이 산에서 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알고서 다시 금강산을 들여다 본다면 골짜기마다, 봉우리마다 온통 불교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비로봉에다 지장봉이며 석가봉·세존봉·관음봉·천불산·대자봉·시왕봉 등등 산봉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하연·묘길상·명경대·득도암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서 가히 불국토다운 명명이요, 불교의 종합 전시관이라고 할 만 하다.

이렇듯 금강산에는 4대 사찰이라는 유점사와 신계사·장안사와 표훈사가 있고 그밖에 정양사·보덕굴·도솔암·안양암 등, 절과 암자가 밤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최근세에 이르러 이 불교의 성지는 뜻하지 않게 민족상잔의 싸움터가 되었고 수백 년을 이어 오던 크고 작은 절이 암자들이 슬하게 잤다가 되었다.

세 해 동안이나 밀고 당기던 싸움이 가까스로 멎자, 그 산의 발치에는 이중 철조망이 쳐지고 사람의 발목을 땡강 자른다는 지뢰의 띠가 이어져 몇 십년째 목정밭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목정밭 한 쪽이 풀려 남북으로 길이 나고 뚱가 한 가닥 땡줄이 다시 흐르는가도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 서로 민망한 샷대질과 닳토퍼만 남기고 잡초는 어느새 다시 길을 덮으려 한다.

이제 저만치 일만이천봉은 다시 입제도 해제도 없는 어색한 묵연의 동안거에 들어 있다. 왜 우리에게만 화두마저 잡을 길 없는 불편하고 소득 없는 날들이 이리도 더디게만 흐르는 것일까?

그건 바로 '금강'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저 화엄의 진리, 일체 원융의 그 가르침을 잃고서 살아온 너나 없는 우리 모두의 업보가 아닐는지!\*\*\*

<leewonik@hotmail.com>

### 동문 시 감상

#### 꽃잎은 저도

정희자(미대 61)



꽃잎이 떨어져 눈같이 덮였네  
꽃잎은 떨어져 누워서도 웃고 있네

전에는 내가 어두웠던 탓일까  
너무도 삶이 고달파 못본 것인가  
꽃잎이 내 삶에 섞여 있지 못했네

이 봄에 피고 지는 너의 아름다움을  
이 봄에 피고 지는 꽃의 늦잠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두고 두고 찬양하니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싶네

## 여행기

## 45년만의 결심

## 미대륙횡단 자동차 여행

조동준(의대 57)

▶45년만의 결심= 미국에 정착한지 45년이 됐는데 아직도 바깥세상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기에, 근년들어 은퇴후 시간도 많고 해서 한번 자동차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년에 걸쳐 생각하다 지난 7월 드디어 떠나게 됐다.

꼭 30년 전 New York에서 LA로 이주해 올 때 자동차로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여행이라기에는 빗하개도 해뜨면 운전대, 해지면 모델 들어가는, 운전만 5일간 한 적이 있다. 요즘에는 두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 척추가 아파오므로 전과 같이 앉음을 알고 있지만, 내일이면 늦으리라 싶어 계획을 밀고 가기로 했다.

작년에는 450마일의 LA-San Francisco 구간을 혼자 시험 운전도 해보았다. 그러나 혼자 먼 여행을 떠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동행할 구하다가 한국에 사는 옛 중고교 동창 두명을 설득해 떠나게 됐다.

일행은 73살 노인 3명, 여행 기간은 3주 정도 잡았다. 우선 목적지는 관광지로 이름난 곳,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등을 택했다. 물론 국립공원도 이번 기회에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중에 시간이 있으면 골프도 치고, 쉬고 즐기면서 가는 여정을 잡았다.

그러나 최우선 목표는 절대적으로 안전여행이었다. AAA에 가입하고 여러 정보도 들었다. 여름은 기후가 더우니 남쪽, Arizona, New Mexico, Texas를 거치는 것보다는 LA에서 북쪽으로 Las Vegas, Zion National Park, Bryce Canyon National Park, Arches National Park, 그리고 Denver를 거쳐 가는 북쪽 코스를 잡았다.

Denver에서 하룻밤 쉬고, 7월인데도 산 정상은 눈 덮인 Rocky Mountain을 보면서 South Dakota주 Rapid City로 올라가 Mt.Rushmore National Monument(대통령 4인의 큰바위 얼굴)를 구경한 후, Chicago로 가는 북쪽 행로를 잡았다.

▶Rushmore National Monument = 우선 Las Vegas로 향했다. 평생 산부인과 개업 의사로 임산부를 챙기다 보니 긴 여행에는 지식이 없었는데, 마친 의대 동창중 목숨걸고 산을 좋아하는 여행 전문가인 Denver의 Dr.Kim에게서 지침을 받아 Bible처럼 챙기면서 준비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임무를 낼 수 없는 여행이었다.

시민권자로 65세 이상이면 10달러로 평생 어떤 국립공원이든 다 출입할 수 있다는 카드를 받았다. 처음 받아보는 시민권 연로자 혜택에 기분이 좋았다. Mt. Rushmore National Monument 들조각상은 보지 않고 죽는다면 후회스럽겠다고 생각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

통령, 독립선언문의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 승리후 노예해방을 이룬 에이브러햄 링컨, 파나마 운하를 만들고, 20세기 미국의 입지를 굳힌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등의 얼굴은 진정 American Spirit를 상징하는 조각상으로 천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조각품으로 생각됐는데, 실제로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제막식에서, 앞으로 1천년은 지탱할 조각품이라 했다고 한다. 맑은 시냇물, 울창한 나무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가끔 나타나는 사슴·노루와 함께 국립공원을 서행하는 기분은 근년에 맞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Chicago로= Ice-Box, 3인용 Tent, 라면 냄비, Flash-Light, 지도에 허리보호를 위한 Back Brace도 준비했다. 운전대를 잠을 때는 반드시 Brace를 허리에 감고 운전했다. 한편, 한국 친구들에게는 미국지리 공부 좀 하고, 국제운전 면허증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운전 면허증은 각주법이 달라 California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일행중 나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 여행동안 나를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책임감을 지우는 것으로 부담을 느끼게 됐다. 지리며 여행지식 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욱이 안전책임을 져야 하니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모처럼 도전해 보는 기회니,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 운전엔 한국 친구들이 흥미를 보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은 하루 두 시간씩 교대로 운전했다. 그럴 때면 불안감에 긴장하게 됐다. 미 고속도로 운전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만일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자동차 여행은 도중에 중단해야 하니 말이다.

Chicago에서는 동창 Dr. Kang 집에서 3일간 쉬면서 골프도 치고, 끝없이 넓은 Michigan 호수며, Sears Tower등 아름다운 건축물 전경을 즐겼다. John Hancock건물 꼭대기 Lounge 에서 보는 바다만큼 큰 Michigan 호수 경치는 오래동안 남을 추억이었다. 시카고의 대학교 교동창 덕분에 친절하고 좋은 안내로 즐거운 시간이 됐다.

▶Niagara Water Falls= 다음 행선지는 Niagara Falls였다. Chicago 근처는 Toll Road가 많고 낯설어 Sign을 제때 읽지 못하고 지나버려 두번이나 Internet으로 후불한 적도 있다. Niagara Falls에서는 바로 Canada 쪽으로 넘어가 구경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실수해서 다시 Canada로 들어가 두번이나 국경을 넘어오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실수도 있었다.

또 Canada와 Cell Phone Roaming 문제로 Ontario에 사는 고교 동창 Mr.Lee와 밤새 숙박

질하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떠나왔다. 나이가 가라는 New York에서 살던 40여년 전에 비해 변함없이 경치는 여전히 한쪽의 그림처럼 장관이었다. Brazil의 이과수폭포(Iguassu Falls)보다 작다고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수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Boston= Boston을 향해 떠날 때는 역시 인구밀도가 큰 동부의 고속도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번개와 함께 소낙비도 만나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을 일시 중지하고 비가 그칠기를 한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심한 비와 번개 속 운전이 무섭다는 것도 처음 느꼈다.

Boston에는 일행중 한 친구의 딸과 사위가 살고 있어 Clam과 Oyster등 Sea Food 맛도 제대로 보았다. 가족들끼리 만남의 깊은 정을 나누는 데 감명받기도 했다. 여기서부터는 고속도로상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한국 친구들에게 더 이상 운전을 시키지 않고 최중지 Baltimore까지 내가 혼자 운전했다. 아무래도 미 고속도로에는 내가 훨씬 더 익숙해 있을 것이다.

동부는 역시 서부에 비해 도로가 복잡하고 오래된 길이라 운전이 아주 힘들었다. 더욱이 떠날 때 가져온 GPS도 자주 고장나 운전이 심히 어려웠다. GPS에 의존해 움직이는데 고장났을 때를 상상해보라.

Boston의 Harvard 대학 Campus, MIT, 그리고 Charles River, Quincy Market 등을 구경했다. City 관광으로 'Duck Tour'라 해서 수륙양용의 배를 타고 한시간 동안 바다에서 보는 Boston city도 인상에 남는다. John F. Kennedy 기념관은 시간상 방문하지 못했다. Boston은 역시 교육의 도시라 학생들이 많아 보였다.

▶New York City= 다음 행선지인 New York City로 떠날 때부터는 운전엔 최고의 긴장이 오기 시작했다. 30년 전 한때 개업했던 Poughkeepsie을 거쳐 뉴욕시내로 들어가던중 아직 그곳에서 개업중인 동창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거 10년 가까이 살던 곳이었는데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낯선 도시로 변해 있었다.

고생 끝에 친구를 만나 Hudson 강변 경치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30년 전 추억을 만추해 보았다. 인근 Hyde Park에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생가와 박물관이 있어, 관람하고 New York을 떠나왔다. 뉴욕시로 오는 도중 West Point Military Academy가 있는데 9.11사건 이후로는 데려워 형태로 더 이상 학교공개는 없다고 한다.

Fort Lee 동창 집에 도착해서 첫날은 City 버스 Tour팀에 참가해 Empire State Building, Statute of Liberty, UN Building등을 돌아보았다. 다음 날은 지하철을 타고 Manhattan으로 나와 Central Park, Metropolitan Museum을 구경했는데, 박물관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왼쪽부터) 나와 배상천(상대 57), 그리고 감병희(공대 57) 동기생이 Mt. Rushmore national monument 앞에서 한 장면 '찰칵' 했다.

저녁에는 고교 동창, 대학 동창들을 만나 32가 브로드웨이 한국식당에서 소주도 한 잔 하며 오랫동안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다. 나의 딸 셋중 둘이 이곳 뉴욕에서 살고 있기에, 곧 결혼할 미래의 둘째 사위에 막내딸의 Boyfriend 함께 Manhattan에서 저녁을 함께 한 것도 뜻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사는 것이 보람된 인생"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Washington.DC= 3일간의 New York 관광을 마치고 마지막 도시 Washington.DC로 갔다. 고속도로가 서부 못지않게 복잡하며 차량이 훨씬 많은 것 같았다. 지하철과 백악관에서 가까운 호텔로 갔다.

다음 날 City Tour Team에 참가해 국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월남 전쟁기념관 그리고 한국전 기념관, Franklin D.Roosevelt 기념관에도 가고 2차대전 기념비도 관람했다. Washington Memorial Monument는 멀리서 보느 것으로 대처했으며 Smithsonian Museum은 주차와 시간상 생략했는데 내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1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조카를 식당에서 만났다. 의외로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나왔다. LA에서 Rent한 Chevrolet 7인승 SUV는 Baltimore Friendship Airport에서 돌려주고 8월 1일 Airport Motel에 도착해 유명한 Baltimore 게맛을 보러 나갔다.

Baltimore항구는 아름다웠는데, 식당에서 맛본 게는 살이 전혀 없어 옛날의 게맛은 찾을 수 없었다. Baltimore시는 45년 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영어도 미숙한 처지에 단돈 40달러 들고 내가 처음 밝은 미국 땅이어서 감회가 더 깊은 곳이다. 이곳에서 미국생활이 시작됐으니, 20대 한 때는 무모하리만큼 젊음과 용기가 있었다. 옛날의 낭만과 추억이 서린 한 때로 마음 속에 간직돼 있다.

▶친구들과 헤어져= 8월 2일 아침 한국 친구 들은 Miami로 아들 찾아 떠나고 난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중에 친구들은 Miami의 Key West, 그

리고 LA의 Ronald Reagan Library와 Museum, Getty Museum 등의 관광후 8월 9일 한달만의 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래 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 일행중 한 친구의 부인이 남편에게 "여행중 친구들과 함께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말에 의아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여행을 끝내면서는 그런명한 조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 팀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우리 팀처럼 45년간 떨어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동생활의 경우 때로는 참고, 양보하고, 웬만한 것은 넘어가는 지혜와 기술(?)의 연마가 필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4천800마일 운전= 서부에서 동부 여정 21일 동안 총 4,800 miles를 운전했으나 운 좋게 전혀 이상없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는 큰 안도감과 함께, 큰 자신감과 성취감도 맛 보았다.

이 글을 끝내기 전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Internet을 통해 Rental Car를 구해주고, 모델 예약이며, 각 도시관광 Plan 등, 필요한 예약과 Internet Service를 내내 대기하면서 도움준 친구 아들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I-Pad Computer와 Samsung Smart Phone, 그리고 Portable GPS의 최신 신기술을 심분 사용했다. 그런 도움없이 이번 여행은 불가능 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GPS의 도움은 신기하다 생각됐다.

음식은 셋 모두 양식에 속달 돼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세사람이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60년의 긴 우정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끝으로, 이번 여행중 집을 개방해준 동기 Denver의 Dr. Kim, Chicago의 Dr.Kang, 그리고 New York의 Dr. Oh와 고교 후배 동창 배광현·김형수씨께 고마운 마음 금치 못하고 있다.\*\*\*

동문 동정 콘서트 · 활동 · 출판(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뉴욕 예술가곡연구회

### 제24회 탈북 난민돕기 음악회 열어

‘뉴욕 예술가곡 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가 지난 10월 2일 뉴욕 프리싱 P.S. 22 강당에서 제24회 탈북 난민돕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을 포함해 700여 명의 청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서울대 동문인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의 노래가 큰 감동을 일

켰으며 가곡이 독창과 중창으로 연주될 때마다 큰 박수갈채와 함께 음악회장은 기쁨과 동포애로 가득찼다.

이 날 공연은 총 1만4천 달러의 성금이 모여 고난에 처한 탈북자 구제에 소중한 기여가 됐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서병선 회장, 세번째가 테너 이용훈 동문이다.

### LA 성서장로교회 원로목사 나민주 동문

#### ‘찬송가 모음집’ 음반출반

지난 3월 성서장로교회 담임 목사직을 20년만에 은퇴한 나민주(66) 원로목사가 음악 전공자로서 평생 소원하던(사진) 음반을 최근에 발표해 화제다. 나민주 목사는 모교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미국 퍼시픽 크리스천 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세계적인 연주자 칼만 블로흐를 사사했다. 나민주 목사가 사모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주한 이 CD에는 주옥같은 찬양들이 실려, 듣는 이들에게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원숙미가 느껴지는 그의 찬송가 모음집은 줄리아드 음대를 거쳐 UCLA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LA 리스트 국제콩쿨’ 등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조혜원씨가 반주로 클라리넷 연주를 돕을 새김하는 음반이라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음악의 집’ 같다.

나민주 목사는 “찬송가는 16, 24소절 등으로 구성된 작은 음악형식이고 찬송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악의 경우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함께 독주회를 했던 조혜원씨와 두 달간 열심히 연습해 녹음했다”고 말했다.

나민주 목사는 “조씨가 전주·간주·멜로디를 직접 편곡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 섬김의 자세로 반주해 주었다”고 치하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나 목사님이 젊은이 못지 않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셔서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나민주 목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송가로 레퍼터리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찬송가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는 노래들이다. 몇 백년 된 곡들도 있다. 앞으로도 어떤 노래보다 긴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음반에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활동한 102세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세이가 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처럼 마음을 평화의 나라로 이끄는 고요한 곡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등과 같이 영혼을 뒤흔들게 하는 명랑한 곡들도 있다.

또 ‘하늘가는 밝은 길이’ ‘갈보리산 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한국인들의 사랑받는 노래들이 가득하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라고 강조한 그는 “찬양으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부족한 CD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일, 소음에 싸여 사느라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 새 힘을 얻는 일, 크리스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 등에 조금이나마 쓰임 받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나민주 목사는 은퇴 후 생김 여유를 후진 양성에 선용하고 있으며, 11월 13일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목관악기 5중주 연주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클라리넷협회 회원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7차례 독주회를 개최하고 벨플라워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연주자를 지냈으며 미주복음주의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세리토스 시의원 조재길 동문

#### 2011 월드와이크 시티연맹 서울대회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시 의원인 조재길(사진) 동문이 월드와이크 시티연맹(World Wide City Federation) 초청으로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월드와이크 시티 2011 서울대회’에 참가했다. 조재길 시 의원은 알 바리비·차규양·김홍식씨 등 3명의 시 커미셔너와 함께 동행했다.

‘월드와이크 시티연맹’은 걷기 및 자전거 타기(Wike: Walk + Bike)를 비롯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성한 유엔산하 국제기구다. 이 연맹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역시 동문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2011 서울대회에서 세리토스 대표단은 11일 오전 세계보행자의 날 기념 청계천 걷기대회(Walkaton)에 참가하고 오후와 저녁에 개최되는 제1회 월드와이크 시티 연맹 연차대회와 만찬에서 세리토스 시의 친환경 정책과 걷기, 자전거 타기 시설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앞서 조재길 시 의원은 김홍식 커미셔너와 함께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10일에는 알 바리비, 차규양 커미셔너와 합류해 지난 9월 세리토스시를 방문했던 서대문구 시 의회 황춘하 의장의 초청으로 서대문구청을 답방해 상호교류에 관해 협의했다.

조재길 시 의원은 이상 공식 일정 외에 6일에는 중앙일보사와 대한 육상경기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중앙 서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7일부터 9일까지 국회, 해외동포재단, 세에덴장로교회 방문 등 개인일정을 갖고 2011월드와이크 시티서울대회에 참가한 후 12일 귀국했다.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영 스님

#### 정혜사 이전 3돌 초빙법회서 설법

오렌지 카운티의 정혜사(주지 스님 석타)가 사찰 이전 3주년을 맞아 11월 13일 원영스님을 초빙하여 특별법회를 열었다.

정혜사는 3년 전 대지 2에이커 규모의 교회를 구입해 4개월 동안 내부 개조 및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원법회를 열었다. 그 후 많은 불사를 진행해 사찰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번 특별 법회는 3년 동안의 큰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원영 스님은 모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해인사로 출가해 입산했다.

그 당시 조계종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을 받았던 성철 큰스님 문하에서 수행했다.

그 이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위원 UC버클리 연구원 경기도 하남시 정심사 주지를 역임했다.

지난 2004년부터 뉴저지 보리사 주지를 맡아 미주 포교에 정진하고 있다.

석타 스님은 “이년에 개최하는 이전 3주년 기념 및 3년 불사 회향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초빙 스님의 설법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슬기로운 불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불자들을 초청했다.

사진은 정혜사 석타 주지스님이 불자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동문 동정

활동 · 콘서트 · 강연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조지아대 석좌교수 박한식 등문

‘남·북·미 3자 트랙2 토론회’ 참가

북한 전문가 박한식 석좌교수가 디렉터로 있는 조지아 주립대 내 국제문제 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Issues, 이하 글로벌 이슈 연구소)가 남·북·미 3자 대표들을 초청해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Triad Track-II Seminar’를 개최했다.

확 막힌 한반도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남·북·미 3자 트랙 2토론회’는 남북간 화해협력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 하고 폐막했다.

총 3박 4일간 5 세션으로 나누

어 에덴스 클래식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북한 핵 개발 ▶휴전협정의 실효성 ▶6자회담 재개 ▶서해상 군사충돌 방지책 ▶남북경제개발 및 문화교류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한반도 집단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토론이 의제로 계획됐다.

패널 참석자로는 북한측 대표로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맹경일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박철 유엔대표부 등이다. 한국에서는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

‘남북미 3자 트랙 2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글로벌 이슈 소장인 박한식 교수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미국측에서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프랭크 자누지 상원의교위원회 동아태담당 정책국장,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KEI)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주최측은 “남북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현안들을 다루는 남·북·미국이 참여하는 3자 대화의 장이며 특히 정부차원 포럼인 트랙 I과는 달리 학문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 그리고 창조적인 발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자 대화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겸허한 의견교환과 대화를 도출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비공식성 (Informality) 발표된 의견과 견해는 패널들이 대표하는 공식적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 ▶비책임성과 비공개성 (Unaccountability) 발언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음) ▶비밀성(Confidentiality) 참가자 발언의 내용과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 언론에 유출되거나 감시받지 않음)을 걸었다. 이 때문에 개최식과 폐회식을 제외한 세미나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원칙으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북한의 대남 협상 창구인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북한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북측으로부터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희망 사항’에 그친 셈이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역시 천안함 사건이 남북을 갈라놓은 최대 걸림돌이었다.

북측은 시작에 앞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논의하자”는 자세를 보였지만 천안함 문제가 나오자 “우리 소행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남측 참석자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측 태도를 현장에서 취재 중인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한 대표들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남측 패널들은 토론회 첫날인 17일 공식 만찬을 마치고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왕 유감을 표명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북측이 강한 불만 제기 등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이런 소식을 보도하자 북측은 “토론 내용은 비공개인데 누가 말했느냐. 도둑질을 안 했는데 앞으로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이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밝혀라”고 다그쳤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남북)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일부 남측 대표들은 “북측이 천안함 사과 요구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석이었을 것이고, 그것도 북측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천안함 문제는 이번 토론회를 관통한 화두였지만 북측은 북미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리 위원장은 토론회 시작 전 미국 CNN과 인터뷰한 데 이어 폐막식에선 미국 AP 통신의 특별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북미 대화 속개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를 탐색 기회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연 동문

뉴욕서 듀오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연 동문이 비올리니스트 김진환과 지난 10월 28일 듀오 리사이틀을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TLC-Care 뉴욕 한미교육회(회장 변성희)’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음악회는 올 여름 새로 발족한 교육회의 첫 후원 콘서트 행사로 맨해튼 디메나 센터 메리 플라글러 케리 홀에서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연(미국명 제인)동문은 모교 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예일대학 석사 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현재 댈러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재원이 다.

한국일보 콩쿠르 대상과 AFAF 국제콩쿠르 1위 등을 비롯한 각종 대회를 휩쓸며 현재 한국

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 감독겸 비올리니스트인 김진환은 연세대 장학생을 거쳐 메네스 음대 석사과정에 있으며 각종 대회 입상으로 주목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수차례 독주회와 협연을 해 온 연주자다.

현재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뉴저지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전자 거문고 주자 김진희 동문

브루클린에서 ‘디지털 부다’ 초연



전자 거문고 연주자 김진희(사진) 동문이 지난 10월 10일 브루클린의 실험공연장 룰렛(Roulette)에서 ‘디지털 부다(Digital Buddha II)’를 초연했다. 김진희 동문은 이날 사미르 샤테지(인도의 타악기 타블라)와 토마스 버크너(보컬) 등과 함께 협연했다.

모교 음대 국악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주한 김진희 동문은 샌프란시스코 밀스 칼리

지에서 전자음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07년 세계를 돌며 연주해오면서 느낀 글을 모음수필집 ‘거문고 탕고’를 출간한 바 있다.

룰렛(Roulette)= 지난 1978년 처음 오픈한 실험음악 공연장으로 이제까지 모두 1천여 회 이상의 콘서트를 열어 왔다.

최근엔 전위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 맨해튼 케이블 TV에 방영해오기도 했다.

최근 소호에서 브루클린 다운타운으로 이주했다(509 Atlantic Ave, Brooklyn).



오재근 IMF변호사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서 공개강의

워싱턴의 전 IMF 수석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오재근(사진) 변호사가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MD·교장 추성희)가 지난 10월 22일마련한 ‘전문가와의 만남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에 초청돼 강연을 가졌다.

오재근 변호사는 워싱턴 한국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전 IMF 수석 변호사로서 국제 통화제도와 IMF(국제통화기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연했다.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 추성희 교장은 “경제학과 법학관련 분야에 대한 소개도 곁들여 이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가 마련하는 ‘전문가와의 만남’ 행사는 매 학년도에 4회 계획돼 있다.

이번 공개 강의에는 최근 새로 부임한 소은주 워싱턴 교육위원장이 참관해 강사, 학부모와 간담회도 가졌다.

오재근 변호사는 지난 1952년 모교 법대(1952)를 졸업한 뒤 미국에 유학와 1956년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학부 과정(1956)을 마쳤다.

또한 1958년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1959)을 마친 후 모교에서 국제법 원서강독 교수(1960~1962)를 지냈다.

이어 지난 1965년부터 1998년까지 IMF 법무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동문 동정

발탁 · 강연 · 취임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문)



한국-루마니아 첫 국비장학생 스칼라튜 동문

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발탁

북한의 경제 모델을 추종하던 동유럽의 독재자 차우세스쿠 정권이 붕괴한 후 선발된 루마니아의 첫 한국 국비 장학생이 20여 년이 흘러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수장으로 변신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X) 사무총장으로 지난 8월 발탁돼 워싱턴 DC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레그 스칼라튜(41)씨는 1989년 소련 붕괴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세기적 대격변의 와중에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해 12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이 붕괴할 때 스칼라튜씨는 국립 부쿠레슈티 대학 영문학과 1학년생이었다. 개방화 흐름과 함께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책과 자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개발사를 알게 됐다.

어느 날 그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고, 이 글이 계기가 돼 1990년 3월 한-루마니아 수교후 한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 루마니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서울대 유학길에 올랐다.

스칼라튜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990년 6월 당시 한창이던 이탈리아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는데 루마니아 교

육부로부터 '한국 서울대 유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 때를 회상했다.

그는 "이전에 한국에서 공부한 루마니아 사람이 없었던 데다 자신이 해외여행 한번 해본 적도 없었지만 동양,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때여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첫 한국 유학생으로 그해 8월 한국에 처음 온 그는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하고 1991년 9월 서울대 의과학과에 편입했다. 서울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딴 후 2000년 미국 최초의 국제법과 외교학 분야 대학원인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에 입학해 국제법·국제인권법·국제기구·동북아·국제개발 등의 분야를 배웠고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플래처 스쿨 졸업 후 민간 국제개발 컨설팅 회사인 국제 과학기술연구소(ISDI)에서 활동하며 세계은행, 미 국제개발처(USAID) 등과 함께 일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잠비아에서도 파견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경험을 쌓은 후 2008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으로 들어가 한반도 관련 이슈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ISDI 근무 시절 파트 타임으로 자유 아시아방송(RFA)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 인권상황을 전하고, 북한주민들에 위부소식을 전하는 대북방송에도 참여했다.

그의 역량은 높은 평가를 받아 미국 내 북한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북한 인권위원회 이사회의 지난 여름 퇴임한 척 다운스 사무총장의 후임자로 스칼라튜 씨를 낙점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북한과 닮은 꼴인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본단 국가인 한국에서 공부한 자신에게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스칼라튜 씨가 사무총장을 맡은 북한 인권위는 30여 년 전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활동으로 유명한 리처드 엘런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행정부 대북 인권박사로 거론됐던 브루킹스 연구소 로베르타 코인 선임연구원이 이사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그는 서울대 유학 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1998년 결혼해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

정창인 박사

LA민주평통 통일교육 세미나 강연

정창인(사진) 박사가 지난 10월 6일 LA에서 열린 제15기 LA민주평통(회장 최재현) 통일교육 세미나에서 '자유통일은 자유시민의 의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인 박사는 북한을 북괴로 지칭하며 "일부 평화통일 운동세력은 사실은 친북 좌파이고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정창인 박사는 또 "과거 정권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역시 친북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사실상 공산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어 " '평화통일' 대신 '자유통일'이라는 구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상생과 공존은 북괴의 존속을 전제된 표현으로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 단언했다.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인의 역량부족'을 꼽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남가주 진보 진영은 강력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80여 명의 평통위원들이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강연 내용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으며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



다"고 전했다.

정창인 박사는 육사 29기로 임관한 뒤 서울대 경영대학원과 그리고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을 거쳐 영국 뉴캐슬 대학을 졸업했다.

그 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거쳐 국가정신화위원회 고문을 지낸 뒤 현재는 시애틀에 거주하며 자유통일포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시켜 북한동포를 억압적 독재체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의사소통을 원한다면 한글만쓰기를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라고 제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미주판매법인장 임종국 동문

취임 3년반 괄목성장 이끌어

현대중공업 미주판매법인의 에블렌타 이주 결정은 현대 대표 임종국(사진 왼쪽에서 4번째) 동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현대중공 미주법인의 중흥을 위해 3년 전 대표로 취임한 임종국 동문은 짧은 기간 건설장비 미주지역 판매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그런 그였기에 조지아 주정부의 유치 노력과 앞으로 중남미 시장 개척, 그리고 동남부 시장의 중요성을 간파해 과감히 에블렌타 이주를 주장한 그의 결정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경기도와 모교 상대를 졸업한 임종국 법인장을 최근 언론이 인터뷰했다.

다음은 임종국 동문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사하는데 어려움은?

"그동안 살던 곳을 등지고 멀리 에블렌타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부 미국인 고참직원들은 이사를 포기했다. 에블렌타라고 하니 시골이라

싫다고 하더라. 또 부동산경기가 불황이라 직원들이 집 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렌트를 주고 온 직원도 많다"

-시카고에서 에블렌타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보도처럼 조지아 정부는 매우 친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주지사와의 얘기 나누다 보니 주정부의 경제개발국은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한인직원까지 채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 우리가 시카고에서 20년 있었지만 고객은 동남부 지역에 더 많다. 그리고 중남미 시장도 우리의 관할이 됐는데 이 지역으로 통하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블렌타가 적지로 떠올랐다. 본사 사장님 말씀대로 에블렌타 이전을 계기로 현대차처럼 돌풍을 일으키겠다"

-노크트스 사육을 일시불로 샀다는 데...

"맞다. 일시불로 매입했다. 거래도 잘해 처음 가격보다 많이 다운해서 살 수 있었다. 매

입대금은 순전히 우리가 장사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충당했다. 올해 예상이익도 그동안의 누적이익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다"

-불경기인데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영업맨이다. 고교나 대학 동창 사이에서 세일즈와 마케팅하면 나를 거론한다. 현대중공업 미주본부는 판매조직이다. 영업에 대한 나의 노하우가 크게 작용했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기술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제품의 질이 좋아진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소개해 달라

"대학졸업 후 현대건설에서 6년간 일한 후 엘라레마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LA에서 가족관련 비즈니스를 해왔다. 물론 그동안 현대와 인연은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3년 반 전 현대중공업 미주법인을 맡아 한다고 해 취임했다"

-현대중공업이 온다니까 주정부도 한인사회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다"

"내년 정도까지 전체 필요인력은 약 1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추가로 40-50명은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미국인이나 혹은 한인들 가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한인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같은 조건이라면 한인들 선호하는 편이다."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업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므로 그런 점에 소홀하지 않겠다." \*\*\*

동문동정

저술·수상·활동·연주 (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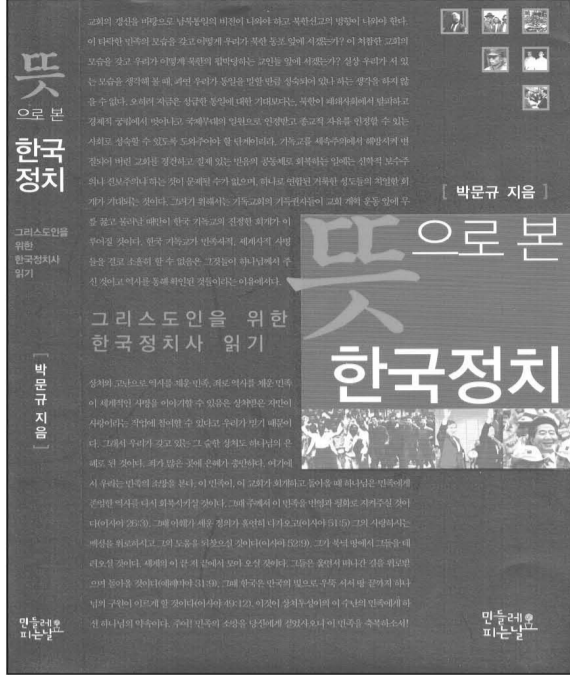
CIU학장 박문규 박사 저서

‘뜻으로 본 한국정치’ 큰 호응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CIU)’ 학장으로 재직중인 박문규(문리대 68·사진) 동문이 지난 3월 펴낸 ‘뜻으로 본 한국정치’가 한국 사회는 물론 미 동포사회에서도 커다란 호응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총 400페이지 ‘민들레 피는 날’ 간행).

이 저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퇴진하기까지 한국의 정치사를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재조명한 재미 정치학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통찰’로 대변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요즘의 한국의 정치사회처럼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저서가 갖는 의미는 더욱 심각하기만 하다. 내용은 1945년부터 1948년 ‘신랑처럼 온 해방: 해방시대의 이해’를 제1편으로 2002년부터 2007년 ‘좌파 정권의 좌절: 노무현의 정치실패’의 제10편까지 각 시대별 정치사회를 깊이 고찰, 특유의 분석력을 동원해 날카로운 통찰의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또한 맺음말로 ‘상처입은 민



족의 내일’과 부록 ‘구속 사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 민족의 현재의 위치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울퉁은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박문규 동문은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시카고 대학과 아이다호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정치학 박사이다.

“40년 넘게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사회과학 이론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세상사가 하도 많아 방향이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존엄해야 할 인간이 존

엄해질 수 없는 세상에 절망해 왔다. 평생을 공부한 사회과학으로 는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오랫동안 믿어 온 기독교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사회과학에 접목해 우리 현대의 정치와 사회를 해석하고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종교적 학문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저서의 부제를 ‘그리스도인을 위한 한국 정치사 읽기’로 한 것도 이같은 목적에서다.

박 동문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밝혀야 하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저서에 대해 박 동문은 “객관적 사실의 기술을 목적으로 한 역사책은 결코 아니며 역사 주변에 있는 박물관적 관심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동문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정립된 방법론이나 사회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도달하고자 쓰인 글은 더더욱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역사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탐색의 흔적이다. 구태여 말하면 사실의 연대기적인 기술이나 사회과학적 분석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종교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박 동문은 북한에 대한 관심도 깊다. 5년 전 북한에서 자동차로 두시간 반 거리의 심양에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CIU)’의 자매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교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낙관주의자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병든 모습에 절망하면서도 미주 한인교회의 개혁을 위해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벌이는 건강교회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편집주간>



하와이 주립대 이병원 교수

‘덕원의숲’ 재단서 중안조남순상 수상

하와이 대학교 민족음악학과 이병원 교수가 최근 한국 덕원의 숲 재단이 선정한 ‘중안조남순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0월 15일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이 상을 받았다.

한국의 ‘덕원의 숲’ 재단은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아 ‘중안조남순상’ 상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시상자로 이병원 교수를 선정한 것이다.

이 재단은 지난 37년간 서양 학자들이 한국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한 후진양성에 힘써온 이병원 하와이 주립대 민족음악학과 교수의 그 간의 공로를 치하해 첫 수상자로 이같이 선정했다.

이병원 교수는 모교 음대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워싱턴 주립대 민족음악학과에서 석·박사 학위

를 이수했다.

그 뒤 지난 1974년부터 하와이 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한국 민족 음악의 세계화와 이 분야 소통의 물길을 트고 있다.

인간의 본질인 행복 추구의 춤의 본질인 생명의 창조를 바탕으로 춤과 화두의 만남, 그리고 선(禪)의 세계를 통해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병원 교수는 1980년 출판된 음악사전인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에 한국관련 내용 전체를 집필했는가 하면 1981년에는 국제 전통음악 협회회의 26차 총회와 학술회의 및 페스티벌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유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해 온

‘덕원의 숲’ 재단 ‘중안 조남순상’ 수상자 이병원 교수(가운데)가 민족음악 분야에 대한 자문 문제로 심신여대 캠퍼스를 방문해 이 대학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일들이 기폭제가 되었는지 이후 한국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 중에서도 한국 민족음악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또한 “상금으로 받게 될 1,000만원은 세계인들에게 한국 음악을 알리기 위한 연구비로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난 1995년 당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로부터 ‘자랑스런 해외동포상’을, 그리고 2007년 난계 약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병원 교수는 현재 하와이 대학 민족음악학과에서 한국음악 이론과 한국음악 세미나, 세계음악문화 등 대학원 과정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중안 조남순상’ 시상식은 지난 10월 15일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있었으며 이날 이 교수의 ‘자연의 소리, 예술의 소리, 선/명상의 소리’란 주제로 수상 발표도 가졌다.

이 교수는 또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아리랑’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해외에서 갖는 아리랑의 상징성’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열 정홍택 동문

한국학교 동중부협 백일장 시상식

임종열(미대 61·미주 한국 전통문화연구원장) 동문과 정홍택(상대 61·필라 동창회 전 회장) 동문이 지난 10월 ‘재미 한국학교 동중부 협의회’가 주관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백일장에서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가졌다.

‘재미 한국학교 동중부 협의회’는 PA·NJ·DE. 3개 주를 포

함하는 한국학교 단체로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백일장’을 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입상자에게 대상·금상·은상 등 5개 본상을 수여하는데 임종열 위원장은 그림 그리기 부문, 정홍택 동문은 글짓기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하와이대 여수연 동문

LA소비스홀에서 가요금 독주회

하와이 대학교 음악과 초빙 음악가로 1년간 체류하고 있는 여수연 동문의 해금 독주회가 지난 9월 28일 오후 7시30분 하와이 대학교 오비스 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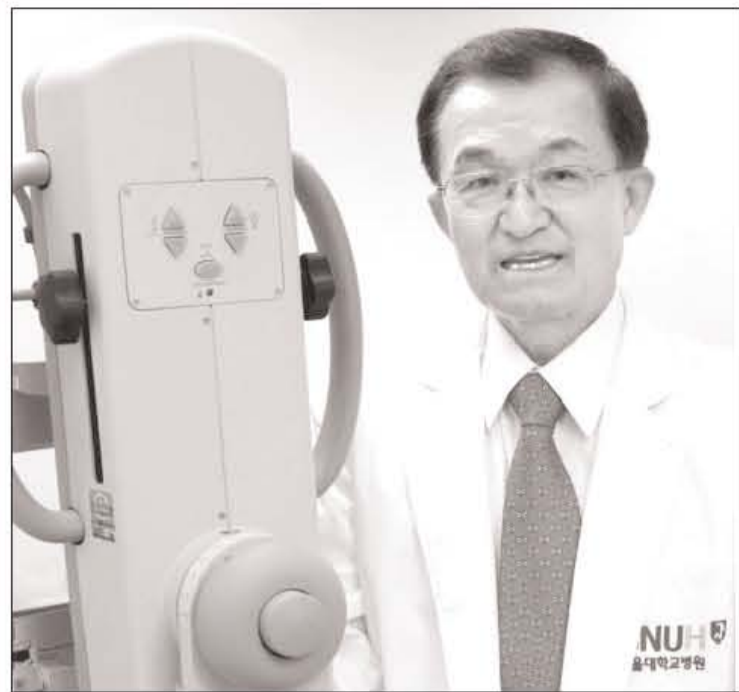
서 열렸다.

여수연 동문은 현재 서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해금 연주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묘인 서울대 유대 강사를 겸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해금산조, 적념과 하와이 대학 작곡가 교수들의 작품을 연주했다. 여수연 동문의 이번 공연은 우리 동포들과 국악의 홍보를 위해 무료로 이뤄졌다.\*\*\*

FOCUS

최신 의학정보 & In Vino Veritas 와인 속 진리를 찾아



MD앤더슨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

한국암환자 멀리서도 티가 나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암이다. 전 세계 의학자들은 암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MD앤더슨의 등문 김의신(외대 60) 박사도 그중 한 사람으로 조선일보가 그의 암 질환에 대한 시리즈를 연재중이다. 동문들의 건강 정보를 돕기 위해 이를 다음 호(12월)부터 전제한다.



왼쪽 사진은 최근 서울대병원 암병원을 방문한 김의신 박사가 치료 기구 앞에 선 모습이고 췌장 사진은 1987년 김 박사가 핵의학자 롬 헤이니 교수와 함께 암진단에 쓰이는 감마 카메라를 만든 다음, 자신을 직접 찍어보기 위해 검사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

“한국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세 티가 나요.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암 세포를 키우는데... 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망치는 경우도 많아 답답할 때도 많지요.” 미국 최고의 암센터중 한 곳으로 꼽히는 MD앤더슨의 종신교수 김의신(70) 박사가

‘암 동거 시대’를 사는 한국인에게 올바른 암 정보를 담아 ‘암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의신 박사는 존스 홉킨스 병원 등에서 예방의학·내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 전문의를 거쳤다. 그 뒤 1980년부터 MD앤더슨 암 센터에서 교수로 2004년에는 미 핵의학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31년째 근무해 오며 한국서 은 암 환자 1천여

명을 닦았다. 한국 의사 750여 명을 이곳에서 연수만도 볼 하기도 해, 국내 암 치료 선진화를 이끈 대부(代父)로도 통한다. 지금까지 국제 학술지에 논문 350편을 발표했고, 저서 15권을 출판했다. MD앤더슨 암 센터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대 부속병원으로, 시사 주간지 ‘유에스월드 앤 리포트(U.S world & report)’ 병원 평가에서 매년 암 분야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폐암에 걸린 삼성이건회 회장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김 교수는 “아직도 위암이나 간암에 걸렸다고 미국 병원에 오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한국 암’은 한국 병원이 훨씬 더 잘 고친다”며 “고령 사회에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니, 암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창회보는 암 발생과 진단, 치료에 두루 정통한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가 전하는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암 정보와 관리법 등을 다음 호(12월호)부터 연재할 계획이다.

들어는 보셨나요? 와인폭탄주



이석우(문리 84)

저는 종종 화이트 와인에 소주를 섞어 마시곤 합니다. “아니, 자칫 와인 애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와인에 다른 술을 섞어 마신단 말인가?” 라고 힐난하실 분들, 제실 잘 압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특히 생선회와 같이 걸들이면 말이죠. 사실, 포도나무는 자연이 제공해 준 정수기입니다. 땅 속의 수분을 걸러서 포도 알갱이 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 즙으로 만든 와인은 그 어떤 음료보다도 깨끗합니다. 양질의 식수가 부족했던 유럽에서 와인이 널리 보급되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청결한 음료의 확보였습니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군대가 유럽 곳곳의 점령지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깨끗한 균용 음료로 사용할 와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니다. 오늘 날 시중에서 팔리는 와인도 산화 방지를 위해 약간 첨가되는 이산화황을 제외하고는 첨가물이 전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무공해 액체입니다. 하지만 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와인에 이물질(?)을 섞어 마시는 행위는 고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 부근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견된 7천여년 전의 신석기 유물에서는 포도즙과 함께 송진 찌꺼기가 발견되었습니니다. 신석기인들이 방부제로 와인 속에 송진을 넣어 마신 증거입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어,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는 와인에 송진을 첨가하고 있습니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고대 유물에서는 와인에 꿀이나 허브, 향신료 등의 첨가물을 넣어 마신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를 거쳐 로마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니다. 그리스 시대에 성행했던 심포지움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소크라테스의 와인잔 속에는 달콤한 꿀이 첨가되었을 공산이 큼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와인을 물로 희석시켜서 오늘 날의 맥주와 비슷한 도수의 알코올 음료로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같은 전통은 오늘날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니다. 여름이 유난히 무더운 스페인에는 ‘상그리아’라는 음료가 인기를 끄니다. 와인에다가 레몬과 오렌지를 썰어 넣고 약간의 설탕을 타서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차게 마시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약간의 탄산소다(사이다 혹은 쉐넬업)도 첨가하면 맛있습니니다. →송진을 넣어 만든 그리스의 화이트 와인인 레트시나(Retsina). 사진은 <http://en.wikipedia.org/wiki/Rets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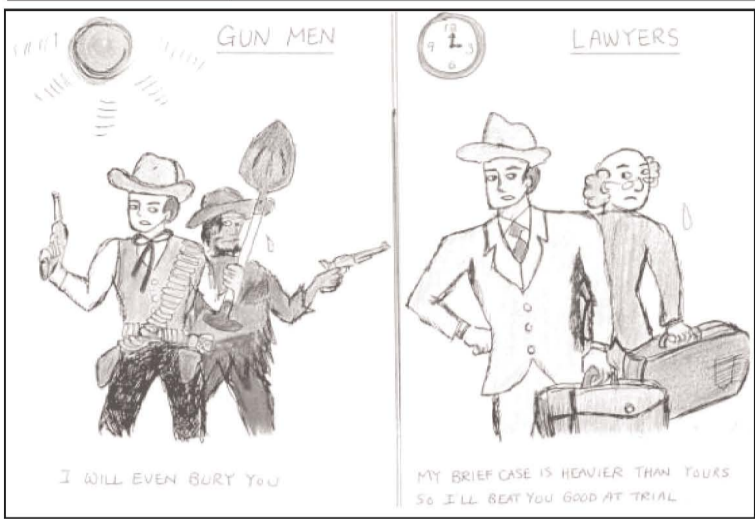
만대로 한 겨울 프랑스의 스키장에서는 ‘뱅쇼(Vin Chaud; 독일에서는 글뤼바이 Gluehwein)’라는 와인 기반의 따뜻한 음료를 마시니다. 레드 와인에다가 옐로우-복숭아 등 과일과 함께 꿀과 정향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따뜻하게 즐기는 음료입니다. 물론 상그리아나 뱅쇼를 만들 때 고급와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저렴한 와인을 써야겠지요. 와인에 다른 물질을 섞어 넣는 행위가 비난 받아 마땅한 경우가 있습니니다. 와인 붐이 한창이던 1990년대, 일본의 부호들 사이에서는 한 병에 수백만원 하는 ‘로마네 콩티’에다가 최고급 샴페인인 ‘동 페리뇽’을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갑부들이 최고의 보르도 와인 가운데 하나인 ‘라피트 로스칠드’에

콜라를 섞어 마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니다. 이런 경우는 섬세하고 복합적인 고급 와인의 풍미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와인을 즐기는 목적 보다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그릇된 돈질에 불과합니니다. 한마디로 와인에 대한 모독이지요. 화이트 와인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지의 기이한 취향으로 놀아가 봅니다. 생선회에 어울릴만한 와인을 한동안 찾았습니니다. 일식집에서 회를 시켜놓고, 샴페인도 마셔보고, 각종 화이트 와인들도 마셔봤습니니다. 하루는 이탈리아의 ‘가비(Gavi)’라는 저렴한 화이트 와인을 일식집에 들고 갔습니니다. 가비는 풍미가 강하지 않고 가벼운 바다감을 갖고 있어서 생선회와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니다. 그러나 와인이 너무 가벼운 나

머지 생선회의 풍미에 밀리더군요. 일행 분께서 “그냥 소주나 시켜 마시시디” 하며 소주를 주문했는데, 순간 ‘소주를 여기다가 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소아메 4대 소주 1로 배합을 했더니, 와인의 약했던 비디감이 폭적해지면서, 생선회와 좋은 궁합을 이루더군요. 이렇듯 와인과 첨가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여 입을 즐겁게 해준다면, 와인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 이탈리아 서북부 피에몬트 지역에 위치한 가비(Gavi) 마을에서는 코르테세(Cortese)라는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드니니다. 사진은 피오 세자레(Pio Cesare)에서 만든 2004년산 가비 와인.



관악세대/Acro 광장 법창일화<3>허장성세 백태



총잡이와 변호사의 허장성세 <그림=박준창 화백>

“목소리만 크다고 소송 이기나”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로만 떠벌리는 것을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하지요. 오늘은 소송을 할 때 담당 변호사와 사건의 의뢰인들의 허장성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1화(징벌적 보상 요구에서 보는 허장성세)

3명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도넛 가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인데,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다같이 매일 매일의 경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친구가 일을 게을리 할 뿐더러 혼자 가게에 있게 되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제때 제 몫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2명의 동업자가 연합하여 이 친구를 가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이 친구는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연합한 2명의 동업자를 변호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경험이 조금 짧았습니

다. 그는 고소장에 정상적인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징벌적 보상’으로 1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징벌적 보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를 준 피고의 행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너무나 가증스런 강압, 사기,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벌을 주어 타인의 귀감을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행위자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고 대신 형사상의 벌금 처럼 돈으로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원고의 실제 피해액수가 기준이 아니고 피고의 재산 규모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예컨대 큰 기업의 경우 하루 매출액이나 하루의 이익금 액수, 개인의 경우 개인 재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징벌적 보상액이 됩니다.

그런데 위 케이스에서는 과연 그렇게 100만 달러나 청구할 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쫓겨난 동업자의 주장이란 것이 계약 위반이나 회사법 위반에 기초한 것인데, 계약 위반 사건에는 징벌적 보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 민법전 3294조).

계약 위반 사건의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상황에서 일개 될 계약상의 혜택을 계약 위반을 당한 측에 보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소장에는 징벌적 금액 액수를 적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캘리

포니아 민법전 3295(e)조).

고소장에 천문학적인 징벌적 보상액수를 적을 경우 피고에게 근거없이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0만 달러라는 징벌적 보상 액수를 명시한 것은 상대방 변호사가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제 의뢰인을 겁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쫓겨난 동업자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쫓아낸 두 사람의 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신청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유 지분이 3분의 2가 되고, 비즈니스 자금의 횡령도 인정돼, 그 신청은 보기 좋게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1차적 판단은 징벌적 보상은 커녕 쫓아낸 주주 두 사람은 다수 주주로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징벌적 보상만 대뜸 천문학적 숫자로 요구하는 것이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의 대표적인 허장성세입니다.

▶제2화(변호사에 대한 협박에서 보는 허장성세)

또 하나의 허장성세는 변호사에 대한 협박으로 나타납니다.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변호사를 겁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끝내게 하겠다는 알뜰한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제 의뢰인이 원단 수입을 합니다. 중국의 수출자가 해상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단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 수출자가 해상 운임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운임을 못 받은 선박회사가 물건을 억류하고 있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제 의뢰인의 거래선에 전화를 해서 마치 제 의뢰인이 운임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불을 안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결국 남기에 맞추어야 하는 제 의뢰인은 운임을 대신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는 이 거래선으로부터 구매

동문 시 감상



푸르던 소나무 아래 어린이들

김태환(법대 46)



아주 아주 먼 지난 날

푸른 뒷동산 잔 소나무 아래 웃고 떠들던 어린이들 세월이 흐른 지금 어른되어 어딘가에 푸르게 살고 있겠지

오늘에 이르러 동산의 그 소나무

고목되듯 그 청청하던 삶 지금 어디에서 단풍잎 지고 있겠지

있는 것이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있는 것이 없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 이 세상 만사 돌고 또 돈다는 그 진리

오늘에 이르러 다시금 생각해본다

가 없었습니다. 제때 운임도 지불하지 않는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난 이 의뢰인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선박회사는 고소장의 내용을 다 사실로 인정하여도 고소가 성립이 안 된다며 고소장 변경이나 기각을 요구하는 신청을 해 왔습니다(그런데는 워낙 법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라 여기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들어 온 협박은, 만약 그 변경이나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도 민사상 무고(malicious prosecution)로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잘못은 그대들이 저질러 놓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순전히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한 무고한 소송에 대해서는 변

호사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그 신청은 보기 좋게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판정문에서 물건을 볼모로 자신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꾸짖는 논조로 그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머쓱한 표정으로 상대방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 나가더군요. 결국 기세등등하게 무고를 주장하던 선박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제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손해 배상을 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허장성세가 많지만 소송에서는 더욱 허장성세가 많습니다. 싸우는 것이니만큼 서로 큰 소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식과 도를 벗어난 허장성세는 실소문을 자아냅니다.

사실도 불리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혼자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사건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변호사들을 가끔 봅니다. 심중팔구는 오로지 사건 수임만을 위한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그렇게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큰소리치는 이런 변호사들은 조심하시고 ‘세다’ ‘강력하다’ 하는 이런 변호사들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힘이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소송은 세계 나간다고,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림= 박준창 화백>

<왼쪽 사진>아무리 불문법 국가라도 기본적인 법전은 다 있다. 위에 예를 든 캘리포니아 민법전처럼 고대로부터 법전은 존재해 왔는데, 비석에 새겨져 있는 현존 최고(最古)의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이다. 기원전 1760년 경, 바빌론의 6대 왕 함무라비가 고대 바빌로니아 법을 발전시켜 비석에 새기도록 한 것이다. 함무라비 왕은 이러한 법전 비석을 왕국 전역에 설치해 온 국민이 다 보도록 했다고 하며 현대어로 전문이 번역돼 있다.

<오른쪽 그림> “우리 배심인단은 피고는 유죄이며 피고측 변호인은 무능하다고 평결합니다.”

관악세대/Acro 광장 인류학 칼럼 <3> & 투병기

오늘따라 왜 그녀가 예뻐보일까?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시대를 겪은 내가 친구들과 즐겨 외우던 가락이다.

원숭이 엉덩이는 앉은 자리가 불그스름하긴 하지만 빨개지는 않는다. 암컷 원숭이만 특별한 때에 엉덩이가 빨갱다. 침팬지도 마찬가지다.

▶가임기엔 빨개져= 암컷이 가임기라는 신호다. 대개 암컷들은 제한된 가임기 동안에만 수컷의 접근을 허용하며, 이 기간에만 교미할 수 있다. 암컷들은 가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좋은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항상 기회를 찾고 있는 수컷들에게 가임기임을 광고해 최대의 경쟁을 부추긴다.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컷의 재생산 가능성은 무한하다. 정자의 수도 많으며, 암컷이 임신하고 있어도 또 다른 암컷을 임신시킬 수 있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재생산 가능성이 미미하다. 난자의 수도 적으며, 임신 중에는 추가로 임신할 수 없다. 따라서 수컷과 암컷은 서로 정반대의 전략을 써야 한다.

수컷은 되도록 많은 수의 가임기 암컷들과 교미하고, 암컷은 매번 임신 기회가 올 때마다 최상의 수컷을 선택하여야 한다. 암컷이 수컷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컷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미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자연계 법칙과 달라= 이러한 자연계의 법칙에 인간은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남자들은 많지 않으며, 사회적, 법적, 그리고 보건학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자는 가임기라는 광고를 하

지 않는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가임기에 상관없이 성교를 하며, 임신에 이르지 않는 성행위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인간의 재생산 노력은 가격 대비 효과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할 수 있게 된 기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핵가족’이라고 답한 놀라운 학설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초기 인류가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면서(이에 대한 것은 이전 글 참조 http://www.acropoli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 임신 혹은 수유 중이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여자들은 좁은 지역을 돌며 식물성 먹거리를 수집했고, 딸린 몸이 없는 남자들은 넓은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았다.

남자는 가져온 고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가임기의 여자에게 고기를 주고 환심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임신-수유 중인 여자는 배란이 억제되어 있으므로 환심을 사뵤자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 혹은 젖먹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자과 아이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일은 자신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된다. 단, 그 아이가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라는 전제하에.

▶핵가족의 기원=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헛고생하는 셈이다. 확실히 하려면 여자가 가임기 때에 그 걸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여자의 입장에서서는 고기를 가져오는 남자가 계속 자신에게 고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득이지만 가임기는 기껏해야 한 달에 하루, 이틀이다.

어떻게 하면 남자가 가져오는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항상 가임기인 것처럼 속이면 된다. 가장 확실한 위장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자신조차도 가임기를 모르게 되었다.

아무도 가임기를 모르므로 인간은 언제든지 성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과 고기를 매개로 짝을 맺게 된 것이 핵가족의 기원이자 인간의 기원이라는 내용의 논문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1981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인류학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진은 가임기를 나타내는 침팬지 암컷이다. 사진에서는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나 엉덩이 성기 쪽이 붉게 충혈돼 있다.

반응이 뒤따랐다. 이 학설에 따르면 핵가족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산물이 아니라, 빗 백만년 전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여자가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

▶가장 오래된 직업= 매춘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남자는 밖에 나가 돈을 벌러 오고, 그 돈으로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은 태초부터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운명이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아니라, 무한한 성생활을 꿈꾸는 남성들의 환상에 편승할 뿐이라는 비판도 강했다.

그러나, 재생산과 분리된 성교, 그리고 숨겨진 가임기라는 인간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정설로 자리를 잡았다.

그 시기가 레이저노믹스, 보수 정권, 그리고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강했던 1980년대였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침팬지와 가까운 종인 보노보의 성생활은 지금까지 인간의 독점으로 여겨져 왔던 다양한 행동을 자연 상태에서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재생산과 분리돼 언제든 가능한 성생활을 즐기는(?) 동물은 인간만이 아니었다.

한편, 여자는 가임기를 속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알게 모르게 가임기 때 평소와는 달리 행동하며, 남자들도 달리 반응한다. 배란기의 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식욕이 줄어들며 남-녀 어느 쪽이 보기에든 예쁜 옷을 입는다.

남자는 배란기 여자의 냄새에 끌리고 배란기 여자의 근처에 가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

▶핵가족 학설의 변화= 스트립 클럽의 무용수들은 배란기 동안에 땀을 더 뺀지만,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무용수들은 땀 액수에 변함이 없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은 자기의 짝이 있는나 없느냐에 따라 배란기 여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한다.

나는 여자의 숨겨진 가임기를 뒷받쳐주는 이전 자료는 생물학적인 ‘여자’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여성’에 대한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성을 창피한 것으로, 혹은 신비한 것으로 지키고 싶은 바람은 여성들 역시 자신의 몸에 대한 질문에 “몰라요”로 일관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성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인간이 지난 150만년 동안 숨겨진 가임기에 남녀 모두 감쪽같이 속아서 핵가족이 시작되었다는 학설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오늘따라 웬지 그녀가 예뻐 보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암 환자로 행복하게 살기 수술 3년차, 검사전 근심걱정



홍현표(외교 84)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3층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1주 전에 받은 CT 촬영과 피검사 결과를 보러 간 것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안했는데 진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가방에서 목주를 꺼내 들고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잠념이 짝아져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며 마음을 다독거리려 봐도 ‘재발(再發)’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전 수술받을 때 저를 도와줬던 분입니다.

인사를 받는 표정이 어두워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저의 검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10분 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 9월 수술하고 3년여 만에 다시 만나는 의사와 인사를 나누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지내 온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사이,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1초라도 빨리 검사 결과를 알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마침내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제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대장 수술 부위도 좋고 다른 곳에 전이되지도 않았네요.” 잔뜩 긴장했던 근육이 갑자기 풀어졌습니다.

의사는 간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아주 작은 물혹이 있는데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 문제 없어요. 피검사 결과도 아주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체중을 많이 뺐 것 같은데 잘됐다” “피검사 수치가 아주 좋은 걸 보니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며 덕담을 했습니다. 다음 진료 일정을 의논한 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마음 상태는 들어갈 때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ㅋㅋ. 막상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아. 마음이란 게. 그러니 사람이지. 신이 아니고.” 사실 검사 2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안쪽과 하복부가 저리고 쓰렸습니다. 갈비뼈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 통증도 있었습니다.

하루 한두번씩 그런 느낌이 반복된 데다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 검사인 복부 CT는 작년 3월, 폐 엑스레이와 간 초음파는 9월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긴 했지만 길어야 1주일 정도면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수면시간을 늘려 몸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스트레칭도, 운동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폈는데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큰 스트레스가 돼 몸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톡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쓰지 못했던 휴가를 하루 냈습니다. 차를 몰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으로 갔습니다. 숲길을 걷고, 산 깊은 곳에 있는 폭포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수술 후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생각했고 마음 비우기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에 어떤 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의 제 모습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암환자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늘 재발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삽니다.

조선일보에 ‘암 이야기’를 연재중인 김의신 미국 MD앤더슨 종신교수는 “미국 환자는 암 진단을 받아도 태평스럽게 지내고 담담한데, 한국 환자는 근심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과 미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은 인정이 많고 가족 중심적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성취 욕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암환자가 되는 순간 많은 것을 잃는다고 여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낙천적으로 즐겨라” “궁정의 힘을 믿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비우는 연습하고, 긍정적이고 즐겁게 생활하려 애썼던 저도 한 순간에 무너질 정도니까요.

그러므로 개개인의 생활 방식 문제라고 외면하지 말고 의료가 그런 정신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뿐 아니라 많이 웃고 긍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한국 암환자의 완치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등정기

북미 최고 Mt.McKinley 봉 종주기<2>



↑Windy Corner를 지나 6월 20일 Camp #6에 도착한 모습이다. 끝없이 지루했던 Kahiltna 빙하를 벗어나 드디어 McKinley 산 중턱 해발 14,000 feet 지점에 올라섰다.

### 하산하던 고행산악회팀 1만피트 지점에서 만나 심한 동상으로 1명 사망소식 몇년 뒤 들어

김성수(의대 59)

▶Rope Team구성= 이날 아침 처음으로 Rope Team이 구성됐다. 한 Rope에 4명, 또는 5명씩 연결되고 제일 선두의 Rope Leader를 따라서 한 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다. Rope leader가 Climbing Pace를 정하게 되는데 서로 교대해가며 위치를 바꾸어 간다.

McKinley 남쪽의 Kahiltna Glacier는 빙하의 하류로 아주 넓은 계곡을 이룬다. Base Camp에서 출발해 천천히 상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빙하 위를 걸어가는데 빙하 자체는 갈라진 얼음덩어리이고 그 위에 눈이 사투이 덮여 있다.

가끔 눈 속에 숨겨진 얼음의 균열(Crevasse)이 있었다. 거기는 밀바다에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Tract만 따라가야 하는데도 위험해서 혼자서는 갈 수 없고 Rope로 서로 맨 채 앞 뒤 한 줄로 전진한다.

이 때 눈다리(雪橋)가 무너져 한 사람이 빠져 들어가도, 다른 Rope Member와 줄로 연결돼 있어 빠지다가 매달리게 된다.

가끔 더 깊이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몸이 완전히 전체가 빠져버리는 경우는 적고, 대개 등에 진 배낭에 걸려 다리만 공중에 뜨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미 훈련된 구조방법으로 끌어 올린다.

산 속의 깨끗한 공기 때문에 먼 거리도 아주 가까이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전진이 한없이 늦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오늘은 짐 나르는 등반(Cache Trip)으로 한 짐 지고 올라가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 Base Camp에서 잠을 잔다.

▶한국 고무군화가 유용= 극지 등반 방법으로 장비와 식량을 몇 번, 며칠에 걸쳐 운반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거리를 두 번, 세 번 반복해가며 올라가는 셈이다. 제일 마지막 사람이 짐을 쉼대에 싣고 끌고 간다. 이게 두 배 고된 일로 교대로 끌게 된다. 또 고도적응을 위해 일부러 하루에 1000feet 이상 고도를 높이지 않는다.

이 때 내가 Rope Leader 처럼 Rope의 제일 앞에 서게 됐다. 잠깐 쉬는 동안 옆 팀의 Leigh와 사진을 찍었다. 그녀와 내 배낭 속에는 식량과 연료 한 통

만 들어 있다. 이 수송이 끝나면 다시 먼지의 Tent로 내려간다. 며칠 면도를 안 해서 그런지 내 코털이 검게 보인다.

온도는 화씨 30도 정도지만 계속 따가운 햇볕에서 걷기 때문에 옷이 땀으로 젖는다. 조금 더 더워지면 옷도리는 물론 바지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가게 된다.

Snowshoes를 신고 그 위에 신발은 Korean Boot로 한국전쟁 때 쓰던 고무 군화를 신었다. 이 군화만이 유일하게 동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모두 이것을 신었다. 신발 밖에 공기를 불어넣어 보온을 시키는데 아주 투박하고 무겁고 크다.

골짜기의 Kahiltna Glacier를 둘러싼 산들이 양쪽을 완전히 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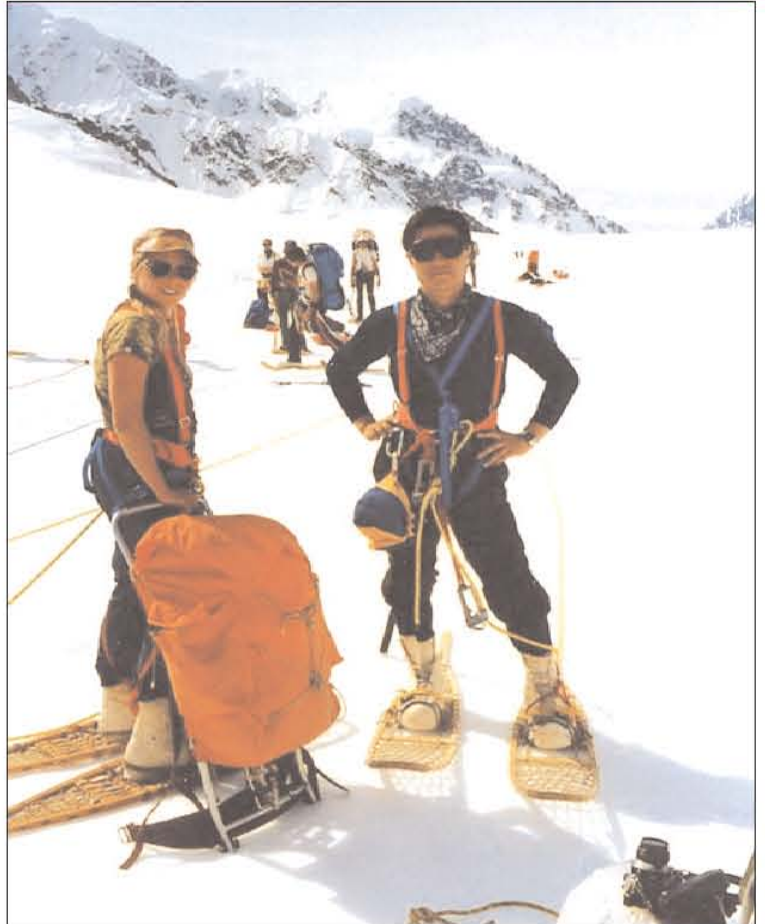
▶고행산악회팀과 조우= 며칠 지나 Kahiltna 빙하가 동쪽으로 구부러지며 산을 향해 급경사가 되기 시작하는 곳이었다.

여기는 Camp #5로 약 10,000 feet였다. 어젯밤에 도착해서 마침 정상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한국의 고행산악회 팀을 만났는데 한 사람이 심한 동상을 입어 고통에 고생하고 있었다. 전 대원들이 모두 심하게 지친 모습이었지만 위로의 말 밖에는 더 도와줄 수가 없었다.

몇년 후 들은 얘기로 이 중 한 사람은 하산하다가 Base Camp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고 했다. 한국의 한 월간 사진잡지에 의하면 이 사람이 6월 16일 사망했다는데, 내가 이들을 만난 것은 분명히 6월 18일 저녁이라 좀 의아한 데가 있다.

이들 7명 중 2명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에

←Kahiltna Glacier의 광대한 크기를 상상할 수 있다. 앞에 보이는 조그만 점들이 10리, 또는 20리 밖의 사람들로 산 속의 깨끗한 공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보인다.



↑다른 Rope Team의 일원인 Leigh와 사진을 찍었다. 오른쪽 밑에 내 배낭의 일부와 Nikon FM 카메라가 보인다.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한국인으로서 6번째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정에 성공한 한국인 5명 모두가 남면에서 올라가 남면으로 내려왔기에(3명은 사망해서 내려오고) 아직 한국인으로는 McKinley 종주(남면으로 올라가 북면으로 하산)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 국립공원 기록에 McKinley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총 100명 남짓했다.

나는 거기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게 된다. 그때 우리 팀 중 8명이 나를 포함해 종주(Traverse)를 하게 돼 있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올해는 Seattle 산악회 팀이 얼마 전 처음으로 종주에 성공하고,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올해 마지막 종주팀이 된다. 종주의 경우, 돌아오는 길이 달라 식량과 장비를 모두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종주가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종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다.

▶McKinley 중턱= 어젯밤에 Windy Corner를 지나 Camp #6에 도착했다. 여기는 해발 14,000 feet로 우리는 드디어 끝없이 지루했던 Kahiltna 빙하를 벗어나 McKinley 산 중턱에 올라선 것이다.

그대신 여기는 보호막이 되는 바람벽이 없어서 모진 바람과 추위를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

낮에는 햇빛이 따가와 일부러 아침 일찍 짐을 나르고 쉬거나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해가 낮게 내려갈 때 산으로 또 올라가며 짐을 나른다.

이 때는 여름 한철이라 해가 밤 12시 쯤 지고, 새벽 2시에 뜬다. 그 사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 밝은 채로 있어서 한 밤중에도 등반을 계속할 수 있다.

수 있다.

따라서 식사는 좀 엉망진창이 된다. 그나마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끓이는 식사인데 먹을 것도 좋은 게 별로 없었다. 정상에서 보냈다는 짐념, 그것 하나만이 매일매일의 피곤을 잊게 해주고 내일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었다.

▶고산병 환자도 속출= 다음 코스 West Buttress인데 'Head Wall'이라 부른다. 'Head Wall'을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고도 적응도 할 겸 다시 하루를 완전히 쉰다.

여기서 쉬는 동안 산 위에서부터 조난자들이 몇 명 내려왔다. 지친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급경사를 구르거나 기어서 내려오기도 했다.

그중 2명은 아주 심한 고산병과 탈수증에 걸려 있었다. 한 사람은 지극히 위중해서 Ray Genet이 무전기로 비행기를 불렀다. 고도의 산악지역 작은 빙하에 비행기가 내리기 위해 우리가 온 종일 빙하 위의 눈을 밟아 활주로를 만들어주었다.

다음 날 Head Wall을 올라가면서 밭을 내려다 보니 구조 비행기가 착륙해서 환자를 싣고 간신히 남겨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늘로 이륙하는 것을 손에 땀을 쥐면서 보았다.

우리 팀 중에서도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발 14,000 feet의 고도와 그동안의 과로가 겹친 모양이었다. 다행히 우리 팀에는 나까지 3명의 의사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돌봐줄 수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여기까지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급경사 6,000 feet(정상 은 20,320 feet)를 올라가야 할 일이 크게 걱정됐다.\*\*\* <계속>



지역 소식

미주 총동창회·남가주 동창회



미주 총동창회

Home Coming Day 후 관광여행

미주 총동창회가 지난 10월 16일 모교 'Home Coming Day' 행사 후 17일부터 5박6일간 국내 명승지 관광여행을 실시했다. 17일 전주·담양·목포, 18일 보성·순천·광양을 방문했다. 19일 진주·거제·거가대교·창원을 거쳐 20일 김해를 돌아 제주도에 도착했다. 21일 제주도 관광 후 22일 서울로 돌아오는 장

정의 여행을 한 것이다. 김계인(음대 60) 동문은 "이번 여행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 중 최고였다. 동행 동문들 세대차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전혀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어울렸다. 역시 동문들이란 이렇게 좋은가 보다. 가는 곳마다 호텔과 음식에 서비스 수준까지 나무랄 데

↑ 'Home Coming Day'에 참가한 동문들이 재학생 밴드에 맞춰 신나게 댄스하고 있다 → 왼쪽부터 이진수(휴스턴) 동문 부부, 백옥자 총무국장, 김계인(시애틀) 동문, 서치원(LA) 동문 부부, 문세화(하와이) 동문 부부가 국내 관광여행 중 제주도 천지연 폭포에서 한 장면 '찰칵' 했다.

가 없었다. 아주 행복감을 느낀 여행이었다. 이런 여행이라면 내년에도 반드시 참가할 것이다. 이번 일정을 준비해준 동문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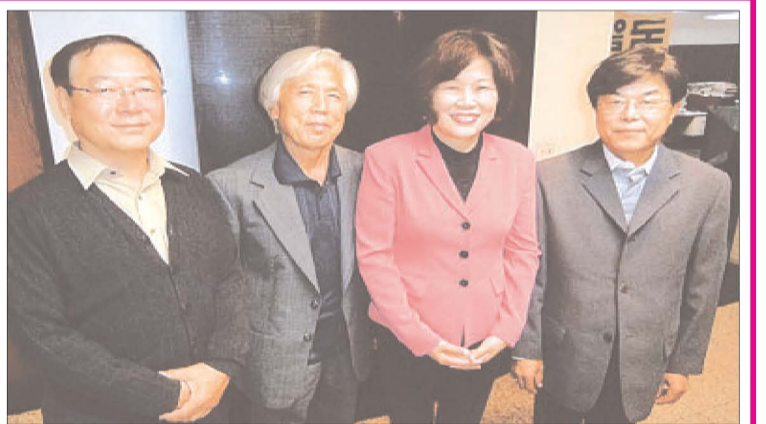
남가주 동창회

제4회 커뮤니티 무료 서비스 행사

남가주 동창회(회장 한종철)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제4회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40여명의 동문 전문인들이 나서 200여 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법률·세무 등에 대해 무료 진료 및 봉사 서비

스를 진행했다. 환절기에 대비한 독감예방 접종(약대 동창회 및 총동창회 제공)과 무료 건강진단, 치과 검진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과 신분·E2 비자 등 각 분야에 걸친 법률상담과 세무·재정 상담 등이 시행됐다. 서울대 병원의 최신 의료장비 소개 및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위암에 관한 모교 의대 양한광 교수님의 강연도 있었다. 행사 후 용궁 중식당에 모인 40여명의 의료진과 임원진들은 저녁을 함께 하며 한종철 회장이 양한광 교수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작은 사진은 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습이다.\*\*\* <글·사진=홍선례 홍보위원장>



음대 동창회 정기 연주회 가져

음대 동창회(회장 박혜란)가 10월 30일 LA다운타운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2011년도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피리 이태준 동문의 전통 궁중음악 연주로 개막해서 클라리넷 김태선, 이정환, 바이올리니스트 우광제, 첼리스트 김소혜, 피아니스트 김소현 동문 등이 출연, 멘델스존의 '2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소품',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등을 선사하고 권길상씨 동요 '푸르다'를 함창, 합주로 대미를 장식했다. 동문들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해 개최하기 시작한 이 콘서트는 지난 해부터 음악 전공 후배 유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

기금 조성도 목적으로 하는 이중 성과를 보고 있다. 음대 동창회는 정기 연주회에 음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인 발굴 기회도 얻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도 USC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들로 구성된 혼성 중창단이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타오르는 마음'과 레하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등을 불렀다. 사진은 2011년 정기 연주회를 가지기 앞서 음대 남가주 동창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다. 오른쪽부터 우광제 바이올리니스트, 김소현 부회장, 이태준 피리연주자, 주호 부회장.\*\*\*



지역 소식

밴쿠버·시애틀



를 제하고 총 1만9천863달러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특히 고인이 되신 최철일(문리대 54) 동문 미망인께서 금일봉을 주셨다.

또 이영진(문리대 56) 동문은 Sunshine Coast의 Cabin 사용편의를 제공해 동문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금해준 금액 전액을 이 행사의 찬조금으로 회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차 사스카추완에 출장중인 조종철(공대 71) 동문은 후원금을 송금해주었고 동문회 서울사무소장으로 9월 초 부임한 박병우(사회대 76) 동문도 멀리서도 협찬해주는 등 동문 여러분들의 동창회 사랑을 여실히 실감하는 미담이 담지했다.\*\*\*

<재무 남궁영(공대 77)>

↑밴쿠버 동창회의 이인철 회장이 '월로 선배 초청의 밤' 행사 후 열린 '동문 음악의 밤' 을 맞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입장권 판매와 광고비 및 31명의 찬조금으로 총 2만3천390달러의 수입을 올려 공연장 대관료 등 경비

밴쿠버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음악의 밤 등 행사 가져

Vancouver 동창회(회장 이인철·사대 59)가 최근 두가지 커다란 행사를 가졌다.

첫째는, 지난 9월 11일의 '원로 선배 초청의 밤' 이었고 두 번째는 '음악의 밤' 이었다.

▶원로선배 초청의 밤= 올해는 55학번 이전 선배를 '원로 선배' 로 정하고 후배들이 모신 것이다.

올해 총 29명의 원로선배와 부인, 27명의 초청 후배 및 부인들이 자리를 함께 해 선후배 간 간격을 좁히고 대화를 넓히는 아름다운 행사였다.

▶음악의 밤= 올해 처음 시작한 동문회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의 밤' 은 지난 9월 18일 있었다.

이 행사는 음대 동문들이 주축이 돼 성공리에 마쳐 매년 1~2명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오던 장학 사업을 더욱 확장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음악의 밤' 은 총 감독 석필원(음대 70) 동문을 필두로 부감독 손주희(음대 78)동문 등 음대 동문들과 자녀, Guest 출연자들의 적극 협조로 The Unitarian Church of Vancouver 에서 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심진택 준비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과 준비위원 등 많은 동문들의 적극 협조와 후원으로 이뤄졌다.

본격 음악회는 손주희 동문이 이끄는 가야금 Ensemble로 시

작해서 박경미 동문의 Flute,

최경화동문의 Piano Trio, 백낙성, 김희숙 동문의 String Ensemble, Soprano 노신숙(음대 75)동문의 Solo로 이어져 황홀한 경지로 몰고 갔다.



시애틀-밴쿠버 동문 골프 교류전

김무웅·이원옥 동문 사제 40년의 해후

시애틀 동문들과 밴쿠버 동문들이 Lake Padden GC(워싱턴주 벨링햄 소재)에서 지난 9월 올해의 교류전을 가졌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밴쿠버에서 13명, 시애틀에서 10명이 참가했는데 올해에는 밴쿠버에서 서명희(미대 71), 이원옥(약대 76) 두 명이 여성동문으로 나와주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내년에는 동문 부인들도 참여하는 다양한 게임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애틀의 김무웅(음대

64)동문과 밴쿠버 이원옥 동문(약대 76)이 같은 조로 편성됐는데 통성명하면서 40년 전 여중생과 음악 선생님의 관계가 밝혀져(사진) 박수를 받았다.

경기 후반쯤 이원옥 동문이 당시 음악시간에 웃다가 별반은 기억을 들춰 선생님 김 동문이 미안한 나머지 더블 보기에 트리플 보기 등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밴쿠버 동문= 이인철(사 59)·이경원(상 59)·이학서(농 59)·김지구(상 60)·이명규(농 69)·



문창영(공 70)·조석기(상 71)·서명희(미 71)·최승선(공 76)·박기홍(공 76)·이원옥(약 76)·남궁영(공 77)·진성훈(농 82)▶시애틀 동문= 한종화(의 58)·

이종성(의 58)·최준환(농 59)·조준범(행대원 69)·우영덕(공 62)·윤석진(문 64)·김무웅(음 64)·윤태근(상 69)·김의철(농 73)·연광석(법 87) \*\*\*

지역 소식

필라델피아·시카고



필라델피아 동창회

신규의장단 이취임식 및 교양강좌

필라델피아 동창회(SNUAPA)가 지난 9월 24일(토) 오후 블루벨에 위치한 갈보리 비전센터에서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화연 전 회장(음대 64)은 이임사에서 임기 동안 임원 및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신임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주기복 신임회장(수의대 68)은 취임사에서 "필라 지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푸짐한 뷔페 만찬 후에 있는 교양 강좌에서 최종무(상대

↑ 위 왼쪽 사진은 조화연(음대 64) 전임 회장과 주기복(수의대 68) 신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모습이다. 이취임식과 교양강좌 후 동문들이 기념촬영했다.

63) 템플대 교수는 'Is Dys-functional Governance a New Global Norm? Myths and Mythology on Debt, Deficit and Democracy' 라는 제목으로 현재 세계 각처, 특히 유럽과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 경제의 문제들을 여러 통계 자료와 함께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Tea Party'의 실체에 대한 명쾌한 해설은 여러 동문들의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풍여행

필라델피아 동창회(SNUAPA)가 지난 10월 22일 단풍놀이 여행 행사를 가졌다.

30여 명의 동창회원과 가족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해 필라델피아에서 두시간 반 떨어진 Ricketts Glen State Park 까지 가는 도중 포코노 산악 지대의 수려한 가을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이 공원은 250 에이커나 되는 호수, Lake Jean 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만들어내는 94 피트의 가노가 폭포(Ganoga Falls)를 비롯해 22개의 폭포로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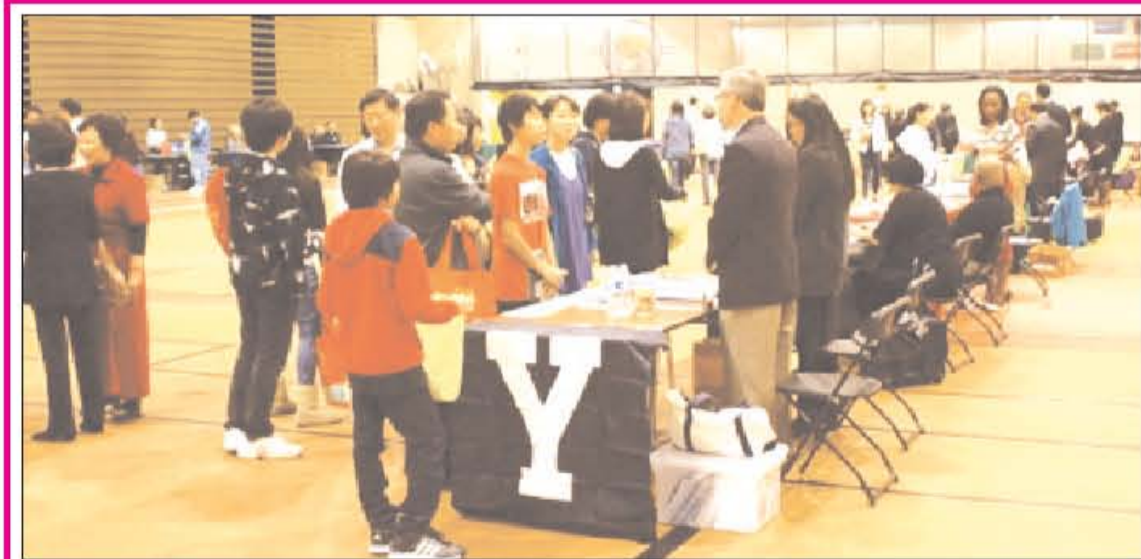
최근의 많은 강우량 때문에 늘어난 수량으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와 함께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 특히 펜실베이니아 State Tree 로 알려진 Eastern Hemlock Tree 들이 하늘 높이 뿔뿔이 들어 차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숲 속의 상쾌한 공기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함께 대지를 가득 덮은 낙엽을 밟으며 걷는 하이킹으로 참가자들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관광버스 안에서의 폭소를 자아내는 오락 순서와 함께 예상보다 쌀쌀했던 날씨였다.

그러나 훈훈하게 떠오르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벌인 각종 프로그램으로 모든 회원들은 친목을 다지며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주기복 회장>



시카고 동창회

'2011아시안 대학진학 박람회' 개최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사직)가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준비사항들을 각 대학 사정관들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학자금 용자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행사를 지난 9월 24일 가졌다.

이 행사는 시카고 동창회가 한울종합복지관과 함께 주최하고 맥도널드가 특별 후원한 것이다. '2011 아시안 대학진학 박람회'는 시카고 알링턴 하이츠 타운내 포리스트 대학학

교에서 4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 속에 치러졌다.

이 행사에는 시카고대·예일대·웨스트포인트·노플담·아트인스티튜트 등 24개 대학 입학사정관 및 관계자들이 부스를 마련, 참가자들에게 입학 자격요건, 학교생활 등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교수진 미시간대 경영대 입학사정관, 시카고 의대 캐런 김 교수, 브레이크 댄서인 빅터 김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조언을 전했다.

기조연설에서 교수진 사정관은 "특별하게 정해진 행로를 걷는 것보다는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런 김 교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박람회에서는 시간별로 법학·공학·예술·약학·경영·소설과학 분야 등 여러 분

야 출신의 선배들로 부터 학업생활 및 취업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직접 경험하는 순서가 마련되기도 했다.

사립 및 공립대학의 특성, 학자금 용자 방법 등 대학생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습득 시간도 마련됐으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SAT 테스트가 실시되기도 했다.

이밖에 맥도널드사에서는 사진찍기, 추천판돌리기 등의 이벤트 선물카드 특별이벤트를 열었으며, 국내선 항공권과 아이패드, 랩탑 컴퓨터 등 경품추첨도 열렸다.

행사엔 한인회와 한인약사회·포스터은행·m파인네셔널은행 등이 13개 부스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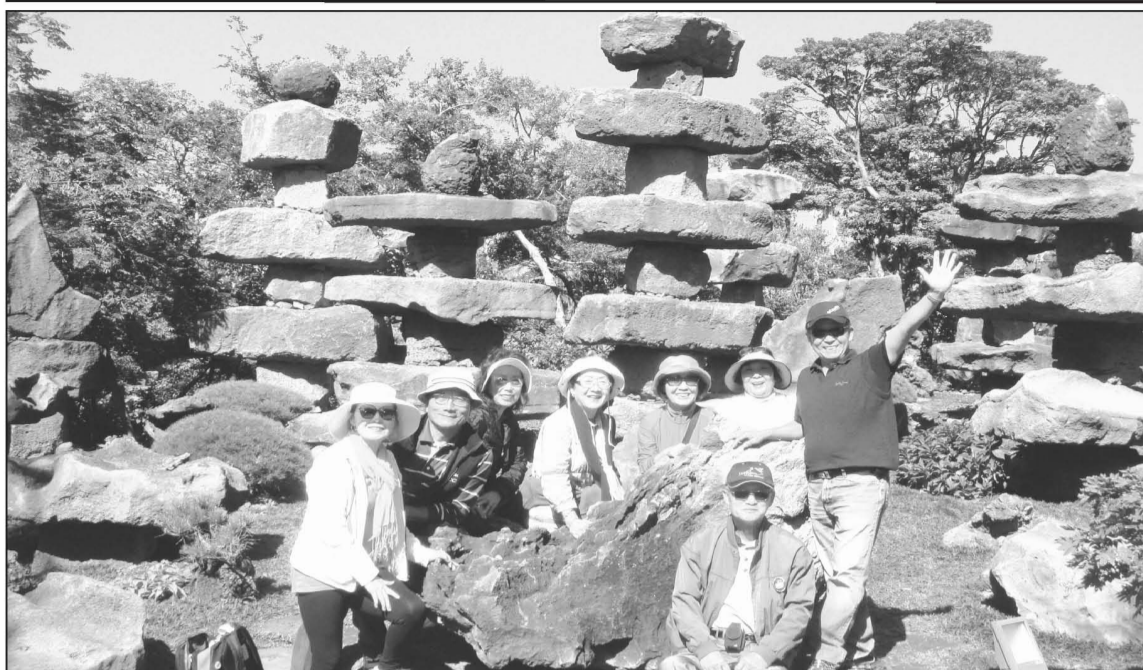
김사직 회장은 "1.5-2세대의 대입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자리로 한인사회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해 치르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 박람회가 매년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나일스 노스고 11학년 일 김군은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이 반갑다. 대입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다. 유명 대학들이 좀더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네이퍼빌 거주 황중언(45)씨는 "아들이 11학년이어서 박람회장을 찾았다.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여행기

Home Coming Day + 고국 관광



←제주도 외돌개에서 동문들과 함께 ↑속초 횃집에서 한 잔

Home Coming Day 고국관광을 마치고

이진수(공대 68)  
휴스턴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오연천 총장님 환대에 감사= 그동안 동문들과 친목 여행(금강산·지중해 Cruise등)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직장 일 관계로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모처럼 아내와 함께 한 'Home Coming Day, 고국 관광여행'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모교 Home Coming Day는, 막상 그 날 처음에는 찌푸린 날씨더니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화창한 날씨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왔다고 특별히 고려해주신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오연천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제주도= 다음 날 제주행 비행기는 때마침 수학여행을 떠나는 중·고교 생들과 겹쳐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룹이 출발 시간 뿐만 아니라 출발하는 공항(김포와 인천)도 서로 다른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 나는 두시간 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야 했기에 아침부터 부산했던 것이었다.

제주 공항에서는 이미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던 동문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른 여행 그룹과 합류해 제주관광이 시작됐다.

이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민속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는 동안 안내자의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온 강인한 제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아리랑 파티 공연에서는 마음놓고 양철판을 두드리는 기회를 가졌고 정원 분재예술 관광에는 나무와 환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다시금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Poster에 쓰여 있었던 '식물도 인간의 정성과 사랑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하듯 사람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과의 싸움 후에 훌륭한 인간이 된다'라는 문구는 인상적이었다.

제주에서 나오는 '삼다수'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 세계 Top수준의 'High Quality Drinking Water'라고 했다.

한창이었던 굴 농사는 이제는 사양길로 가고 대신 다른 생산성 높은 농작물, 즉 키위·산삼·약초 등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삼다도(三多島)' 제주에는 아직도 바람과 바위는 많지만 여성들은 많은 수가 이곳을 떠났다고 한다.

▶갈대와 역세의 차이= 갈대와

역세는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데 물에 받을 담그고 있는 것은 갈대, 물가에 있지 않은 것은 역세라는 사실도 새삼스레 새겨보았다. 바람따라 높고 바람따라 일어하는 역세의 휘청대는 모습이 부드러우면서 가을의 운치가 깃들어 있었다. 즐겨 부르는 노래 '아, 으악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가 '새(鳥)가 아니고 역새였다니...

만병통치와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제주 특산물인 산삼 배양품과 말뚝가루 등을 샀다.

어쨌든 지난 2-3일간 이곳 제주 날씨에 화창했고 구름 한 점 없는 기후였다. 유럽선상에서 선명하게 한라산의 봉우리를 볼 수 있었고 제주 특산의 좁쌀 막걸리와 돼지고기 찌개로 배를 채우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부산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으로 용두산 위 관측 탑에서 부산의 야경을 통해 부산의 옛 도시와 새 도시를 번갈아 보면서 안내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부산역은 유서깊은 곳이란 다. 왜냐 하면 부산역은 부산 항구와 연결돼 있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됐단다. 일본이 한국을 속박한 1910년 이후 이곳 부산역-부산항을 통해 많은 한국 문화재가 유출됐다. 또한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할 때 일본에서 군인과 공수물들이 이 부산항과 부산역을 통해서 이동했다고 한다. 또한 박정희 정부시절 이곳에서 월남으로 파병하는 한국 청

←동문들이 관악 캠퍼스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왼쪽)과 자리를 함께 해 환담 중이다.

년들의 환송장이었다고 했다. 부산, 'Old City'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해운대의 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이미 밤은 깊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다. 아침 식사후 동백섬을 둘러보았다. 지난 2009년 이곳에서 G-20 Asean 정상회담이 있었다. 참가 정상들의 의상이나 제공된 음식들은 옛 이조 왕들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경주= 부산을 떠나 경주로 향했다. 가는 동안 안내자의 말에는 유모어와 위트가 가득했다. 첫 경부 고속도로 완성 때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주 박물관은 이미 많은 관광 버스가 줄을 지어 있었다. 안내자의 설명으로 옛 신라시대 기와의 형상, 황용사 탑의 위용, 왕 무덤의 '능'과 '총'의 차이점(능은 알려진 왕의 무덤이고 총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덤)을 익혔다. 신라인들은 무덤의 도굴을 막기 위해 고안해낸 진흙과 돌의 구상이 특이했다.

토함산 석굴암 부처님의 돌들은 이 산 주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이 돌들을 어디서, 어떻게 이 산 꼭대기까지 운반할 수 있었을까.

1천여 년을 지난 불상들이 근래에 와서는 수분의 영향으로 에어컨 시설이 된 유리상자 속에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안동= 대구로 출발해 대구에서 일박한 후 안동 하회마을에 갔다.

예로부터 안동 김씨, 안동 권씨, 풍산 류씨 등의 집안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으며, 특히 이조 선조 때 영의정 류성룡의 집이 이곳에 있다. 또한 몇년 전 영국의 Elizabeth여왕이 방문해 그녀의 생일잔치도 이곳에서 했다고 한다. 옛날 모습의 마을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있어 감사했다.

안동에는 고등어 조림이 유명하다고 한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이지만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를 소금에 간을 한 후 이곳까지 운송하는 사이 고등어의 체온과 운반시간이 적절히 화합해 고등어 조림의 진가가 난다는 것이다.

▶단양팔경= 안동을 뒤로 하고 단양팔경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갔다.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경치 또한 일품이었다. 역시 화가 김홍도가 이곳을 배경으로 많은 풍속화를 그렸다는 사실이 이해가 됐다.

속초로 가는 길에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제법 굵은 빗줄기가 됐다. 기후 변화로 속초·강릉 지역에는 예상치 않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속초와 설악산= 속초의 호텔에 여정을 풀고 근처 횃집을 찾았다. 싱싱한 회와 소주·맥주를 즐기며 '만남'의 시도 듣고 '이 풍진 세상...' '두둥실 떠나는 배...'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비가 부슬 부슬 내리는 토요일 아침 우리 그룹은 누구보다도 먼저 설악산 입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서둘렀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다.

10월 중순 피크를 이루는 단풍은 어느 곳에도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었다.

케이بل 카를 타고 산 중턱에 올라왔을 때 비구름으로 앞을 볼 수가 없어 아쉬움만 남기고 다시 내려왔다. 그러자 비는 그치고 설악산을 빠져나오는 동안 안개 사이로 솟은 바위와 계곡은 다시 볼 수 없는 절경이었다.

▶서울로 귀환= 오후 서울에 도착하니 화사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여행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여행의 필수조건인 건강·날씨·친구를 두루 갖췄던 이번 여행에 감사한다. 특히 올해의 'Home Coming Day'와 '고국 방문 관광 여행'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다.\*\*\*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논설 뿐 아니라 문학작품(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기타)과 동문들의 동정(직업변경, 이사, 활동 등)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6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보 1페이지(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페이지, 한글 약 3천자) 이내가 원칙으로 원고가 너무 길 때는 부분삭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및 투고하실 때는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연도, 얼굴 사진과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됩니다.

원고 보내실 곳 :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Tel : (310)515-7888 e-Mail snuaausalkj@gmail.com

미주재단·모교소식 이사장 인삿말·동창회관·광고

미주재단 이만택 이사장이 동문들께 드리는 글

“미주 동문 여러분들에게...”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만택입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1952년 문리대 의예과에 입학해서 1958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재단은 2008년 5월 15일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김형주 교수님, 남익현 교수님, 주종남 교수님, 이석원 교수님, 미주 총동창회 측으로 초대 오인석 이사장님, 이진구 회장님, 송순영 회장님, 김은중 회장님의 봉사로 오늘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 2.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세부 지원 분야 >

- A. 장학지원=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미주 동문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수학기 장학금 지원 ▶저소득 미주 한인 자녀 서울대 입학 및 수학기 장학금 지원
  - B. 연구지원=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각종 강연회 지원.
  - C. 프로그램 지원= ▶서울대학교 저소득 학생 미주 지역 하계강좌 프로그램 지원 ▶동문 자녀 및 미주 한인 자녀 국제 하계 강좌 참여 지원.
- 본 재단은 기증인의 희망과 요청(Donner Advice)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한푼 두푼 절약해 기부한 여러분의 고귀한 기부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Tax Return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동문 여러분의 재단입니다. 재단은 여러 동문들과 동포의 참여와 지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본 재단에 대해서 의문 사항, 기부에 관한 문의, 기타 문의를 하여주시면 성심껏 대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인 2010년 2월 17일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면세 승인 기관(301-C-3)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교는 SNU Challenge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의 3대 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5,000억원 목표로 모교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계 명문대학의 연간 예산을 보면 하버드대가 4조47억원, 서울대가 9천542억원으로 서울대는 하버드대의 23% 수준입니다. 여러 동문의 정성 어린 기부 하나 하나가 모교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기회에 재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설립 목적 >**  
▶서울대학교 국제화 및 세계 수준 인프라 구축 ▶서울대학교 교육 및 인재 육성 지원 ▶서울대학교 사회적 기여도 향상 도모 및 자선 활동 수행 ▶동문간의 친목 강화 및 재미 동문 공동체 발전 지원.



모교 동창의 '장학빌딩' 서울 마포구 도화동서 준공식



세계 대학중 최고의 동창회관

모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가 주축이 돼 추진해온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의 신축 공사가 완료돼 마침내 지난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성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6년 6월 25일 기공식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이 총동창회 장학빌딩은 지상 19층에 지하 6층의 규모로 현재 전 세계 대학 동창회 건물로는 최

고 수준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동창회관은 “건축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동문 6천 600여 명의 성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미주 총동창회에서도 이미 지난 해부터 각 지역 동창회별로 많은 동문들이 적게는 100~500 달러부터 최고 100만 달러를 출연한 바 있다. 이같은 동문들의 성원을 기념하기 위해 2층에는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에는 기금을 성금한 동문들의 인적(人的)사항을 새긴 동판을 설치해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기도록 하고 있다.\*\*\*

재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고 동시에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U.S.A. 212-768-9142

Seoul 82-2-871-1642  
www.snufoundation.org  
E-mail: snufoundation@yahoo.com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김희원(수의대 73)

(510)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고국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행사 · 부음

수상

▲朴炳善(역사교육46-50 재출 서지학자)=9월 2일 외규장각 도서 국내 반환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11월 4일 경암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제7회 경암 학술상 특별공로상 수상.

▲李御寧(국문52-56 전문문화부 장관·중앙일보 상임고문)=10월 1일 제20회 소중·사선문화상 특별상.

▲李成美(회화58-62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9월 29일 외규장각 도서 국내 반환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孫京植(법학57-6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9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도스트릭(우호) 훈장 수훈.

▲李哲雨(농경제61-65 롯데백화점 사장·경대원동창회장)=8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2회 아이남기 좋은세상운동 경진대회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吉熙星(철학61-65 서강대 명예교수)=11월 4일 경암교육문화재단서 제7회 경암학술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李泰鎮(사학61-66 국사편찬위원장)=9월 29일 외규장각 도서 국내 반환 기여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상.

▲金耕一(조선항공63-67 장공산업 사장)=9월 21일 제8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金永植(화학공학65-69 모교 동양사학과 교수)=11월 4일 경암교육문화재단서 제7회 경암학술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鄭旻植(화학공학67-71 호남석유화학 사장)=10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5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 수상.

▲金璟浩(행정71-75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9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수여 사회공헌기업대상(노인복지 부문) 수상.

▲梁承錫(경영71-78 현대자동차 대표)=9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수여 사회공헌기업대상(사회적기업 부문)을 수상.

▲朴興信(외교72-76 주프랑스 대사)=9월 2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주도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상.

▲金承佑(기계설계74-78 KAIST 교수)=11월 4일 경암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제7회 경암학술상(공학 부문) 수상.

▲許淮榮(행대원77일 코레일 사장)=9월 9일 국제성과향상학회서 성과향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盧在賢(국어교육77-84 중앙일보 논설위원)=9월 22일 고운문화재단서 제22회 고운문화상(인문인 부문) 수상.

▲康炫培(수학78-82 인하대 교수)=10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제25회 인촌상(자연과학) 수상.

▲孫勳(토목공학88-92 KAIST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최근 미스텐퍼드대 제8차 국제구조물발전도 모니터링학회서 한국인 최초로 구조 건정성도 모니터링 올해의 인물상 수상.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9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도스트릭(우호) 훈장 수훈.

▲洪性烈(AMP 50기 마리오아울렛 회장)=9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수여 사회공헌기업대상(지역경제발전부문) 수상.

▲成始結(ACAD 55기 한국항공공사 사장)=9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수여 사회공헌기업대상(복지 부문) 수상.

▲金容九(SCS 15기 국회 의원·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9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도스트릭(우호) 훈장 수훈.

▲文蕪淑(ALP 12기 유니버설발레단 단장)=11월 4일 경암교육문화재단 제7회 경암학술상(예술부문) 수상.

▲許台秀(AMP 2기 GS SHOP 대표)=9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수여 사회공헌기업대상(아동복지 부문) 수상.

인사

▲金相福(중교57-63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세계복음주의연맹 회장)=9월 1일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취임.

▲金光元(행정63졸 한국마사회장·대한승마협회장)=9월 17일 아시아승마협회(AEF) 회장에 선출.

▲李章燾(전기공학65-71 모교 전기공학부 전 교수)=10월 1일 에티오피아 국립 아다마대 총장에 취임.

▲朱子文(사회교육65-72 충북대 전 총장·한국학술진흥재단 전이사장)=9월 1일 광주여대 제7대 총장에 취임.

▲南尙九(토목66-70 고려대 명예교수)=9월 8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출.

▲梁精鉉(의학73졸 건국대 유방암센터장)=9월 1일 건국대 의료원장 선임.

▲李明哲(의학67-73 모교 핵의학교수·모교 발전기금 부이사장)=9월 4일 세계동위원소기구(WCI) 총회서 제2대 회장에 선임.

▲尹英大(행대원74졸 前 통계청장·공정거래위원회 전부위원장·서울산업대 초빙교수)=9월 6일 한국조폐공사 제21대 사장 취임.

▲方在旭(생물교육68-75 충남대 교수·생물교육과동창회장)=9월 1일 한국생물과학회 제48대 회장에 취임.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9월 16일 유엔 산하 비상설 국제기구인 '브로드밴드 위원회(BOD)' 위원 위촉.

▲張太平(사회70-77 농림수산식품부 전 장관)=8월 31일 출범한 '더좋은 나라 포럼' 공동대표 선임.

▲陸喜洙(기계공학70-74 덴소풍성 전 대표)=9월 20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코다코 영업및 생산부문 총괄사장 선임.

▲朴仁國(중문71-75 전 유엔 대사)=9월 5일 SK그룹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에 취임.

▲金用民(전자공학71-75 워싱턴대 교수)=9월 5일 외부인사 처음으로 포스텍 제6대 총장에 취임.

▲申鉉澤(역사교육71-75 여성가족부 전차관)=9월 5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임용.

▲張忠基(무역72-7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9월 20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선임.

▲金豪濬(전기공학72-79 한국전기연구

원 선임연구본부장)=9월 14일 한국전기연구원 제11대 원장 취임.

▲太錫基(의학72-78 전 대한건축관련학회 회장·동국대 교수)=9월 1일 동국대 의부부 총장겸 의료원장.

▲尹錫厚(농화학73-77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9월 9일 한국식품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취임.

▲徐德模(법학73-77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장·벤처비전 총영사)=9월 21일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취임.

▲許京旭(경영74-78 ZUCCO 대사)=9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전략 특별 작업반 의장에 선임.

▲李南植(농화학74-78 국제디자인대학원 전 부총장·전주대 전총장)=9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대 총장 취임.

▲李載恒(법학75-79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9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장에 위촉.

▲변용찬(수의학75-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9월 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대 원장 취임.

▲李仁用(동양사학76-8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9월 20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선임.

▲權勉(원자핵공학76-83 국가핵융합연구소 선임단장)=9월 14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제3대 소장 선임.

▲李鍾求(의학76-82 보건복지부 전 질병관리본부장)=9월 1일 모교 병원 대외정책실장에 선임.

▲申齊潤(경제77-81 前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9월 6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명.

▲金東旭(경제78-82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9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취임.

▲高基錫(법학78-82 한국과학기술원 감사)=9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임명.

▲李際漢(수학교육79-83 에이트미디어 전 대표)=9월 8일 야후 코리아와 오버쳐어 코리아 총괄사장에 선임.

▲梁俊結(행대원83졸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전본부장)=9월 1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제5대 상근부회장에 재선임.

▲尹源源(경제80-84 재정경제부 전종합정책과장·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9월 6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

▲金相洙(외교82-86 SBS 전미래부장·청와대 녹색성장환경 비서관)=9월 6일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에 임명.

▲文誠顯(농화학82-87 한국오즈카제약 전부)=9월 19일 한국오즈카제약 대표이사 사장 선임.

▲黃大煥(국제경제87-93 KBS 콘텐츠본부 다류엔터테인먼트)=9월 5일 한국PD연합회 제25대 회장 선출.

▲薛均泰(행대원88-90 국민카드 전수석부 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9월 23일 광양항만공사 초대 감사위원장에 선임.

▲成完鍾(AMP 32기 경남기업 회장)=최근 대한적십자사 RY(Red Cross Youth)

사업 후원회장에 위촉.

▲金重謙(AMP 64기 현대건설 전사장·한국주택협회 회장)=9월 16일 한국전력공사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

**행사**

▲俞焘(행정49-54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劉基天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이사장)=9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제7회 月松기 학술심포지엄 개최.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9월 21-23일 가천대 경원캠퍼스 비전타워 야외광장서 경원대와 가천의 과대 통합기념 제7회 정기오페라 출향전 공연. 22일 인천시청 잔디마당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 기념행사.

▲鄭興淑(가정교육59-63 중앙대 명예교수)=10월 13일부터 매일 둘째 목요일 서울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라 스칼라 오페라 아카데미' 개최.

▲金榮秀(법학60-6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8월 31-9월 3일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제7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9월 6일 '창의와 상상의 고지-예술'을 주제로 제7회 수원예술인축제 개최.

▲金錫友(행정63-67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9월 7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미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李成俊(고고인류64-69 한국인론진흥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9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사-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를 주제로 토론회.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9월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인생 100세 시대: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최고경영자초대회 개최.

▲李泰植(외교64-70 전주미 대사)=10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행복센터에서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 개최.

▲金聖二(사회사업65-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9월 20일 서울 페퍼타워서 제3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도박중독 예방치유 심포지엄.

▲金兌完(교육67-71 한국교육개발원장)=9월 5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서 '관·민 독서교육 지원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독서교육포럼 개최. 23일 '영재선발, 다양화와 평등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주제로 제3차 영재교육정책포럼.

▲柳寅淑(응용미술68-72 서양화가)=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리움에서 제2회 개인전 개최.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헌법이론을 친근하게 다룬 '헌법학 입문'(법문사) 출간.

▲李在然(가정관리74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9월 2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

▲任燮伯(정치71-75 고려대 교수)=최근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고려대출판부) 출간.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9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4 남북 공동선언 4주년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

▲田宅秀(사회교육71-7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9월 2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코리아저널 창간 50돌 기념 학술심포지엄.

▲鄭準基(의학71-77 모교 핵의학교실 교수·세계분자영상학회 유치조직위원장)=9월 6-1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분자영상학회 학술대회에서 2014년 서울 유치에 성공.

▲馬孝燮(토목공학72-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9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사전교육 세미나.

▲李勝煥(해양73-7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9월 20-22일 서울 세라몬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매스미디어와 국제이해교육 포럼 개최.

▲郭守根(경영73-77 모교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9월 22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사회적기업 경영포럼 개최.

▲金正恩(기약83-87 바이올리니스트)=10월 12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라벨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趙允敬(기약91-95 단국대 초빙교수·피아니스트)=10월 9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조소연(기약94-98)동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개최.

▲鄭承宰(작곡88-94 상명대 교수)=10월 7일 서울 영산아트홀서 朴俊泳(작곡86-90)·金千燮(작곡87-91)·金眞洙(작곡88-92)·金承琳(작곡91-95)동문 등과 작곡동인 '知音' 정기발표회.

▲李尙恩(기약93-97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플루티스트)=10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플루트 독주회 개최.

▲羅繼燮(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9월 26일 서울클럽에서 '차기 정권의 과제와 리더십'을 주제로 세미나.

▲安鎭元(HFM 6기 부천대 객원교수·법무부 범죄예방위원)=9월 16일 서울 행동동 통일회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

**삼가 명복을 빕니다**

▲張基權(중문 39-51 모교 전 교수)=9월 27일 별세(89세)

▲金龍星(정치 46-50 전 국회의원)=9월 20일 별세(87세)

▲金重植(교육 46-54 익문사 사장)=9월 16일 별세(86세)

▲朴喜寅(지질과학 52-56 모교 명예교수)=9월 11일 별세(79세)

▲金應瑞(광산 56졸 모교 전 교수)=9월 11일 별세(78세)

▲陸榮東(금속공학 56-60 리엔목특허법인 대표)=9월 18일 별세(75세)

▲朴憲永(경영 70-74 이화여대 교수)=9월 6일 별세(60세)

▲李相鉉(자연공학 70-74 우영산업 회장)=9월 1일 별세(59세)

▲禹仁基(섬유공학 83-87 구주글로벌 대표)=9월 8일 별세(46세)

▲孔鍾植(영문 85-92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9월 10일 별세(45세)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1년 7월1일~11월 18일까지)

2011년 동창회비

<b>Alaska</b> 윤제중(농대 55)	박병원(의대 49) 박영옥(사대 55) 박원준(공대 53) 박의순(상대 53) 박은숙(미대 62) 박인수(농대 64) 박자경(사대 60) 박제인(약대 60) 박종수(수의 58) 박취서(약대 60) 박현숙(사대 54) 박홍근(공대 64) 박희자(음대 68) 배상규(약대 61) 백옥자(음대 71) 서동영(사대 60) 서병선(음대 65) 성주경(상대 68) 신광재(공대 73) 신대식(상대 60) 신명국(수의 76) 신영수(상대 70) 신경수( 55) 신한경( 47) 신희정(미대 73) 심상은(사대 54) 안현중(음대 56) 양광주(문리 58) 양성문(공대 65) 양은석(음대 70) 엄동해(농대 74) 원미남(미대 65) 유세미(약대 62) 유희자(음대 68) 윤용길(공대 55) 윤정자(약대 63) 윤희성(치대 65) 이근호(공대 46) 이기재(사대 52) 이길자(약대 63) 이동성(의대 51) 이문상(공대 62)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상대(농대 80) 이상문(의대 54) 이서희(법대 70) 이선화(미대 83) 이승훈(상대 74) 이연행(문리 68) 이영진(간호 77) 이원익(문리 73) 이의덕(대원 71) 이재권(법대 56) 이정근(사대 60) 이정옥(문리 71) 이정일(농대 57)
-----------------------------	--

이종묘(간호 69) 이준식(의대 61) 이중희(공대 53) 이희순(음대 64) 이희영(의대 ) 임용오(의대 59) 임정란(음대 76) 임천빈(문리 61) 장기창(공대 56) 장동석(문리 66) 장인숙(간호 70) 전낙관(사대 60) 전성대(사대 60) 전철승(공대 51)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석(공대 57) 정원훈(상대 38) 정진수(공대 56) 정태무(사대 44) 조동준(의대 57) 조정시(공대 60) 조종용(공대 45) 조태근( ) 조태준(문리 59) 지성호(상대 73) 차기민(공대 85) 차종환(사대 54) 최덕순(간호 59) 최부식(약대 66) 최복영(사대 56) 최승륜(상대 53) 최영순(간호 69) 최왕완(공대 57) 최왕욱(공대 69) 하기환(공대 66) 한상봉(수의 67) 한의일(공대 62) 한중철(치대 62) 한효동(공대 58) 홍용화(공대 73) 황동하(의대 65)
--

최애옥(간호 47) 최혜숙(의대 53)	<b>Connecticut</b> 김기훈(상대 52)	<b>Colorado</b> 표한승(치대 58)	<b>Delaware</b> 문대옥(의대 67) 안세현(의대 62)	<b>Florida</b> 박창익(농대 64) 신상계(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제갈은(문리 59) 한기민(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혁상(의대 55)	<b>Georgia</b> 김영서(상대 54) 김용진(문리 48) 김태형(의대 57) 안승택(상대 51) 이명재(상대 52) 임수암(공대 62) 임한용(공대 60)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최우백(공대 76)	<b>Hawaii</b> 윤상철(약대 47)	<b>Indiana</b> 임영신(의대 54)	<b>Indiana</b> 강창욱(의대 55)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옥현(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만수(상대 81) 이유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임종식( ) 임필순(의대 54) 홍영석(공대 58)	<b>Massachusetts</b> 김제호(상대 56) 노인규(의대 52)
--------------------------	----------------------------------	-------------------------------	---	--	--	-----------------------------	------------------------------	--	--

박제영(문리 48) 박종건(의대 56) 윤상래(수의 62)	<b>Minnesota</b> 남세현(공대 67) 박인영(의대 69) 성옥진(치대 87) 왕규현(의대 56) 하계현(공대 64) 패트장( ) 60	<b>Michigan</b> 남성희(의대 58) 오상현(의대 65) 이상일(의대 54) 유효명(의대 60) 육태식(의대 61) 차대양(공대 55)	<b>Missouri</b> 김승희(법대 55)	<b>Montana</b> 박용호(의대 59)	<b>Nevada</b> 김영중(치대 66) 최영수( )	<b>Nebraska</b> 김명자(문리 62)	<b>New Jersey</b> 곽상준(약대 55) 김규화(상대 63) 김세환(공대 65)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정혜(간호 64) 김현수(공대 82) 김현우(공대 56) 라준국(공대 47) 박성일(상대 58) 박성호(공대 57) 박진우(상대 77) 배명애(간호 49) 선우문혜(약대59) 선우치민(약대48) 송용설(농대 63) 연봉원(문리 61) 윤준식(법대 58) 이경림(상대 64) 이정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운순(의대 52) 이유찬(의대 58) 이재원(법대 60)
--	---	---	-------------------------------	------------------------------	---------------------------------------	-------------------------------	---

이종환(법대 51) 정순기(문리 69) 최영태(문리 67) 최준희(의대 58) 최한선(공대 56) 허선행(의대 58)	<b>New York</b> 강영선(공대 ) 강충무(사대 60) 김문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김세중(공대 50) 김현중(공대 69) 김정희(간호 63) 노용면(의대 49) 류영호(의대 ) 문길용(음대 45) 민발식(의대 60)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서병선(음대 65) 서영숙(간호 ) 손경택(농대 57) 신의정(음대 55) 양거영(의대 49) 윤병하(농대 80) 윤봉균(사대 54) 윤영설(의대 57) 이국진(사대 51) 이대영(문리 64) 이병무(법대 57) 이정은(의대 58)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임석태(대 ) 조대영(공대 61) 차국만(상대 56) 최석진(사대 54) 최영태(문리 67) 한용진(미대 56) 허병열(사대 42) 홍선경(의대 58)	<b>N. Carolina</b> 이석형(사대 56) 조동림(의대 52) 홍 훈(자연대 )	<b>Ohio</b> 박 철(사대 55) 송영덕(의대 57) 송용재(의대 63) 이영용(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	--	---	---

<b>Oklahoma</b> 차봉희(의대 51)	<b>Oregon</b>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 최동근(문리 50)	<b>Philadelphia</b> 강춘철( ) 김낙구(상대 67) 김영배(수의 59) 김용국(의대 58) 김운옥(간호 76) 김태양(사대 61) 남영선(공대 79) 서중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송영두(의대 56) 신선자(사대 60) 오연각( 53) 오진석(치대 56)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기범(의대 55) 이만택(의대 52) 이병영(공대 48) 정정수(의대 56) 주기복(수의 68)	<b>Texas</b>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영옥(가정 74) 김영창(공대 64) 김정훈(공대 46) 김훈목(사대 58) 박석규(간호 59) 박영규(사대 66) 양덕주(문리 66) 유세만(공대 59) 이길영(문리 59) 이규진(약대 60) 이영재(상대 58) 진기주(상대 60) 최성호(문리 58) 최용천(의대 53) 탁순덕(사대 57)	<b>Utah</b> 김인기(문리 58) 정석화(대학원66)	<b>Virginia</b> 박정훈(상대 50) 박용걸(약대 56) 박일영(문리 59) 박평일(농대 69)
-------------------------------	---	---	--	---	---

백 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안병협(공대 58) 유홍열(자연 74) 이영덕(사대 61) 정원자(농대 62) 차광은(음대 64) 최규식(상대 65)	<b>Washington</b> 김동호(농대 58) 김성열(치대 61) 김영일(공대 53) 구분영(공대 65) 김운국(문리 49) 박진수(의대 58) 박찬형(의대 56) 변종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양용관(수의 62) 이영목(공대 59) 최준환(농대 58) 홍영석(공대 58)	<b>Wisconsin</b> 장세곤(의대 57)
--	---	--------------------------------

“모교 사랑은 동창회 참여로 부터...”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후원금 신청내역(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관약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비
연\$200 <input type="checkbox"/>	2010~2011년 \$75 <input type="checkbox"/>	2010~2011년 \$12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00 <input type="checkbox"/>
연\$500 <input type="checkbox"/>	2011~2012년 \$75 <input type="checkbox"/>	2011~2012년 \$12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연\$1,000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명함1/2 \$2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명함크기\$500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13.5") \$1000 <input type="checkbox"/>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310-515-7888>로(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Signature:		Date:
Address	Zip		Pay to order of 'SNAAUSA'

동창회비·광고비·관악후원회비·기타 후원금 납부현황

2012년 동창회비

California  
윤희성(치대 65)  
이정근(사대 60)  
최덕순(간호 59)  
최왕욱(공대 69)  
한상봉(수의 67)

Chicago  
이소희(의대 61)  
임현재(의대 59)

Georgia  
김용건(문리 48)

New Jersey  
박성일(상대 58)

New York  
최석진(사대 55)

Ohio  
최인갑(공대 57)

광고및 업소복

듀오 250  
월서은행 1,000  
나라은행 400  
자연나라 2,400  
Nexen Tire 1,000

California  
강신용(사대 73) 120  
김제영(농대 62) 120  
나정자(간호 70) 120  
노명호(공대 61) 200  
독고원(공대 65) 120  
서동영(사대 60) 120  
서동영(사대 60) 200  
신대식(상대 60) 120  
유희자(음대 68) 120  
차기민(공대 85) 120  
최무식(약대 66) 120  
한상봉(수의 67) 150

Chicago  
서상현(의대 65) 120  
이춘우(치대 54) 120

Georgia  
최우백(공대 76) 120

Maryland  
남옥현(경영 84) 120

이준영(치대 74) 120

Nevada  
김영중(치대 66) 12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 1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경립(상대 64) 120  
최영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중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이만택(의대 52) 200

관악 후원회비

Arizona  
박양세(약대 48) 200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200  
김영서(상대 54) 200  
김재중(치대 62) 200  
노명호(공대 61) 1000  
백옥자(음대 71) 200  
엄동해(농대 74) 1,000  
임천빈(문리 61) 200  
정원훈(상대 38) 200  
최재현(수의 500)  
하기환(공대 66) 200

Chicago  
구경희(의대 59) 200  
김계균(공대 60) 200  
이용락(공대 48) 5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200

Maryland  
권철수(의대 68) 200

Massachusetts  
김재호(상대 56) 200

Minnesota  
왕규현(의대 56) 200

New Jersey  
이운순(의대 52) 200  
허선행(의대 58) 200

New York  
윤병하(농대 80) 200  
임석태(대)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225

Philadelphia  
손재욱(가정 77) 200  
이기범(의대 56) 200  
이만택(의대 52) 200  
정정수(의대 56) 200  
주기복(수의 68) 200

Utah  
정석화(대학원 66) 200

Texas  
김정훈(공대 46) 200

Virginia  
박용걸(약대 56) 425  
이영택(사대 61) 200

Washington  
김동호(농대 58) 200  
김성열(치대 63) 200  
이영복(공대 59) 200

모교 발전기금

Arizona  
지영환(의대 59) 100

Georgia  
정양수(의대 60) 1000

Maryland  
김승희(법대 55) 125

지부 분담금

Arizona  
김병수회장 500  
지영환(의대 59) 100

Chicago  
김사직회장 1200

특별 찬조금

Massachusetts  
정병욱( ) 1000

**동문 여러 분께**  
미주 총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은 미주 동문 한 분 한 분께서 매년 정성껏 보내주시는 연 회비와 각종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 여러 분들의 이러한 정성은 곧 우리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다 나은 미주 총동창회를 만들고, 보다 나은 동창회보 발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미주 총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보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주 총동창회가 2012년 Alaska Cruise를 실시합니다”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Cruise중 제21차 평의원 회의도

미주 총동창회(회장 김은중·상대 59)에서는 2012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Alaska Cruise' 관광여행을 실시합니다.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으로 명명된 이번 관광 여행은 LA지역 유수의 관광 업체인 '아주관광'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번 Cruise 여행에서는 제11대 회장단에 의해 주관되는 제21차 평의원 회의 행사도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경유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문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Cruise 경비> ▶ Inside(IE) \$1,090/PP, IC\$1,125/PP  
▶ Oceanview(OK) \$1,250 PP, OC

\$1,350/PP) ▶ Balcony(BD) \$1,800/PP, BA \$1,850/PP  
<포함 사항> ▶ Cruise ▶ 항만세 ▶ Government Tax  
<불포함 사항> ▶ 항공비 ▶ 선내 서비스비 ▶ 가이드비 ▶ 기항지 옵션 관광비 ▶ 공항, 항구까지 Transfer비 ▶ 선사보험 ▶ 여행자 보험 ▶ 선내 식사외 식음료비 ▶ 기타 개인 비용  
<지불방법> ▶ A. Deposit= 계약 당시 \$300.00/PP. 2012년 3월 31일까지 예약 취소시 Deposit 전액 환불 ▶ B. 잔금= 2012년 3월 31일까지 환불.  
<문의> ▶ 아주관광(크리스티나 213-388-7000)  
▶ 미주 총동창회(백옥자 총무 국장 818-225-8411)  
\*동창회보 32면 참조



날짜	경유지	이동	시간	일정
제1일	LA~ SEATTLE	항공	~4:00PM	각 지역 출발, 시애틀 항구에서 만나십니다. 승선 후 승선을 시작하십니다. 초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승선 후 다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선내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후 4시 인사이드 패시지를 향하여 출발한 후, 비상탈출훈련이 있고,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을 가지십니다.
제2일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	하루종일	전일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를 저속 항해 합니다. 알라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는 예로부터 인디언들의 수송로로 이용되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절경을 자랑합니다. 선상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십니다.
제3일	케치칸	관광	6:00AM ~1:30PM	케치칸은 들링깃족이 여름에 연어낚시를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연어가 주 수입원이던 1930년대는 연간 2백만 통을 생산해내는 11개의 통조림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가까이 강우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산맥이 우거진 케치칸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토핑(빙산)이 전시되어있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4일	쥬노 (알라스카)	관광	2:00PM ~10:00PM	알라스카주의 주도인 쥬노는 1880년대 골드러쉬 때 생겼으며, 오늘날 알라스카에서 가장 장엄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몇 개의 거대한 피오르드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선택관광을 이용해 웅장한 랜덴홀 빙하를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5일	스케그웨이 (SKAGWAY)	관광	7:00AM ~8:00PM	오전 7시 스케그웨이에 도착합니다. 스케그웨이란 이름은 알라스카 남부인디언족인 들링깃족의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Skagwa'는 북풍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유콘지역의 글린디이크에서 금광석이 발견되면서, 탐험가들이 금광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스케그웨이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만 명 이상의 탐험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그들이 남기고 간 유충기는 그 당시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6일	글래시어베이	항해	하루종일	민년설과 빙하가 깔려있고 흰 눈이 덮인 환상적인 산봉우리들이 펼쳐져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글래시어 베이는 9개의 작은 빙하 피오르드 및 해변에 연결되어있는 많은 섬과 항구들로 구성되어 알라스카 자연동물들의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협곡과 빙하가 어우러진 알라스카의 장관을 따라 항해하시며, 선내에서 빙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7일	빅토리아	관광	6:00PM ~11:59PM	오후 6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로 밴쿠버섬 남단에 위치한 매력적인 항구도시 빅토리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단장된 올드 타이문과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린(Sunken)정원이 있는 부차드 정원 등을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영주권/미국 복수 비자 필요
제8일	SEATTLE ~LA	항해	7:00AM	오전 7시에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이른 조식을 드시고 하선하십니다. -항공편으로 각 지역 도착(LAX)도착 후 자유해산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 CA 남가주

### 건축/건설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호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8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90  
3128-BE. Scotts View Orange CA 92688

**JND Engineering**  
박진복(농대 67) (310) 38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6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 공인회계사

####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8315  
8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 Kim & Kang CPA's

(김경무 강경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89) (213) 616-138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 Kim & He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663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8-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82) (213) 381-0761  
365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8557  
555 W. Redondo Beach Bl. #28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8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점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6-6622  
8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 Corp**  
윤홍현 (사회대 81) (213) 427-558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응철 공인회계사**  
이응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8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9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886

**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9901  
366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850  
Los Angeles, CA 90010

### 금융/은행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489-4584 (213)500-8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 리태일러

**한남제인 (리태일러/상패)**  
허기환(공대 66) (213) 381-38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8

**The Westar Group 윤정희(상대 83)**  
(828) 400-7074 1618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략원 74)**  
(908)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8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8 1440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여건영(문리대 71)**  
(818)878-18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필산(문리대 64) (213) 623-7617  
8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 리태일러/보약업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8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업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818-225-8411 (Fax)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훈배 교육상담센터**  
 이훈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역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스톰어/아드웨어/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충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NARA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앤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Richard Cupp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장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호경 치과**  
 이호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행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선(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개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중(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avina CA 91791

트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철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순두부 213-382-6660  
이테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철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8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 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외과/안의원**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재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양공

Driveteck,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학 / 동물병원 / 요양업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SieU-10 Benwyn Heights,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계약상담

로얄 부동산
임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학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역원 / 문학역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수의학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D 메릴랜드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926-9692. 8931 Shady Grove Court
Gaithersburg MD. 2087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또벌)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태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무역/중개업**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영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8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니/정금강제**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민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위사/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유통/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funeral.com

**의료/내외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철 소아과  
박범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업(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시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육

든든한교회

김상근(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연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의료 / 시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iv.com

애 오아이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명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타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타일 / 장학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 / 오셔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욱 정형외과
문대욱(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시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운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 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3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치과/물리니**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 Suite#101 Vancouver WA 98684

**의료/물리니**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컴퓨터/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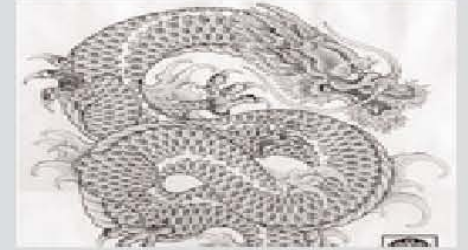
**有毛魚? ㅋㅎ**

**예쁜 손**  
어느 날 5살짜리 남자 애가 4살짜리 여자 애 옆에 와서 뽀얀 손을 덩석 잡았다. 4살짜리 여자 애가 너무 놀라서 “어머!” 하며 부끄러워 했다. 그러자 5살짜리 남자 애가 “왜 그래? 한 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면서...”

**예로 영화**  
결혼 10주년을 맞은 부부가 영화관에 가서 농도 짙은 예로 영화를 관람했다. 그 날 밤 집에 돌아 오자 아내의 남편을 보고 볼멘 소리를 냈다. “당신은 어째서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 처럼 나한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는 그렇게 해주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알거나 해?”

**용꿈**  
어떤 남자가 밤중에 잠을 자던 중 용 세 마리가 승천하는 꿈을 꿔다. 그 남자는 날이 밝자마자 부리나케 복권을 구입했다. 그리고는 열심히 맞춰보았으나 모두가 팡팡팡이었다. 낙심한 나머지 너구리 라면을 사서 집에 가지고 가서 끓여 먹으려고 뜯어 봤더니 그 안에 다시마가 3개 들어 있었다.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한종철(치대 62입) 562-860-8544(o) bluebirdhan@hotmail.com
	차기회장	서치원(공대 69입) 213-415-1764 charliesuh49@gmail.com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cshin@mmm.com
	차기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eem@gmail.com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회장	김사직(상대 59입) 224-805-0171 kimsajik@yahoo.com
	차기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clUSA@gmail.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박희진(농대 78입)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38-1097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구자동(상대 77입)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민철(사대 59입) 604-228-1684 in-cheol-lee@hotmail.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인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 · 박평일(농)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인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삼(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원영(문) · 김중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섭(NY) · 백순(WA,DC) · 육길원(CH) · 이정광(LA) · 정홍택(PA) · 윤상래(MA) · 김창수(NY) · 임승래(SF) · 장석정(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 서종민(공) · PA  
위원 =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용남(농) · NY) · 함은선(음) · WA)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Wasabi, Roasted, Sweet

Jayon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제조/냉장고-상업용  
www.turboairinc.com



**Turbo air** AIR CONDITIONER MANUFACTURER

**GERMAN KNIFE**

**RADIANCE**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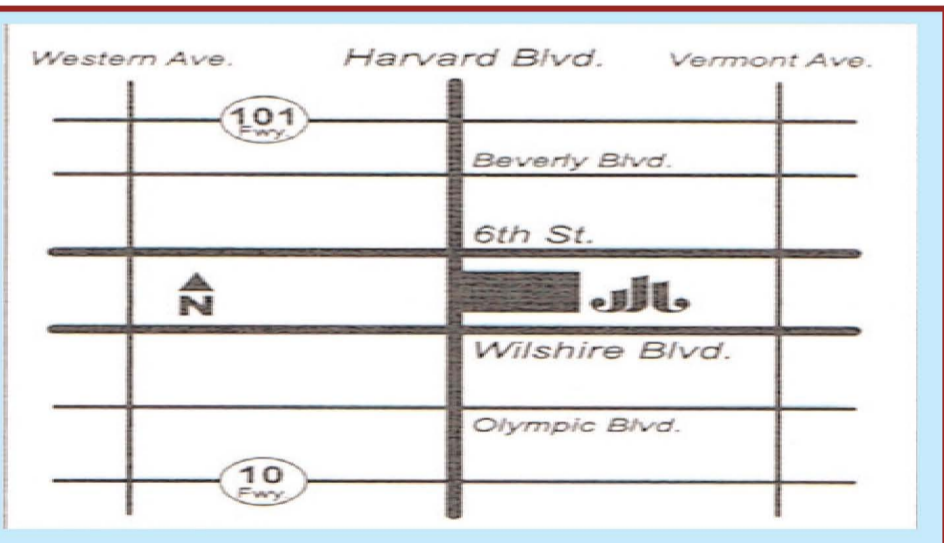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베데랑 커플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1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JJ GRAND HOTEL**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Western Ave. Harvard Blvd. Vermont Ave.

101 Fwy

Beverly Blvd.

6th St.

Wilshire Blvd.

Olympic Blvd.

10 Fwy

**Kay Kim**  
F & Manager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3-3000  
Fax. 213-381-0001  
www.jjgrandhotel.com  
kayheukim@yahoo.com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안내**

- 한식당 '우미관' 2층
- 일식당 '혼마찌' 2층
- 카페 '폰타나' 1층
- Outside Catering
- 한정식 코스/일식코스/뷔페
- 대소 연회장
- 예식장: 결혼식/약혼식
- 가족모임: 회갑연/고회연/백일/돌
- 세미나: 학술발표회/전시회
- 기타모임: 조찬회/망년회/동창회

— 여행박사 박평식대표 동행 해외여행 특선 —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떠나세요!”**

<b>인도/네팔</b> 4월 \$3,499 3/14/2012	성지순례와 특스관광을 동시에— <b>아랍/이스라엘/요르단</b> 15일 \$3,799 1/8/2012	<b>남미일주</b> 13일 \$4,799 2/18/12	<b>아프리카 6개국</b> 14일 \$6,799 3/1/2012
--	--	--	---

SINCE 1984 US이주투어/LA이주관광 www.usajutour.com

# 이주관광

대표 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예약/문의 **이주크루즈** 213.388.7000 (담당 : 크리스티나)

# 서울대 미주동창회 2012년 알래스카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크루즈 특선여행 세부 일정과 사항”

날짜	경유지	이동	시간	일정
제1일	LA~ SEATTLE	항공	~4:00PM	각 지역 출발, 시애틀 항공에서 만나십니다. 승선 후 승선 시작합니다. 초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승선 후 다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은 선내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후 4시 인사이트 패시지를 향하여 출발한 후, 비상탈출훈련이 있고,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을 가지십니다.
제2일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	하루종일	전일 인사이드 패시지(내수면)를 저속 항해 합니다. 알래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는 예로부터 인디언들의 수송로로 이용되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선상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십니다.
제3일	케치칸	관광	6:00AM ~1:30PM	케치칸은 툰링깃족이 여름에 연어부시를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연어가 주 수입원이던 1930년대는 연간 2백만 통을 생산해내는 11개의 통조림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년 200만척 가까운 강우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산맥이 우거진 케치칸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토맹물(장송)이 전사되어있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4일	주노 (알래스카)	관광	2:00PM ~10:00PM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는 1890년대 골드러쉬 때 생겼으며, 오늘날 알래스카에서 가장 장엄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몇 개의 거대한 피오르드는 탄성을 지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선타관광을 이용해 웅장한 맨틀을 빙하를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5일	스케그웨이 (SKAGWAY)	관광	7:00AM ~8:00PM	오전 7시 스케그웨이에 도착합니다. 스케그웨이란 이름은 알래스카 남부인디언족인 툰링깃족의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Skag' 는 북쪽의 정이라는 뜻입니다. 유콘지역의 들론디크에서 금광석이 발견되면서, 탐험가들이 금광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스케그웨이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만 명 이상의 탐험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그들이 남기고 간 유물들은 그 당시의 승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6일	글레시어베이	항해	하루종일	만년설과 빙하가 깔려있고 흰 눈이 덮인 환상적인 산봉우라들이 펼쳐져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글레시어 베이는 9개의 작은 빙하 피오르드 및 해변에 연결되어있는 많은 섬과 항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알래스카 자연동굴들의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협곡과 빙하가 어우러진 알래스카의 장관을 따라 항해하시며, 선내에서 빙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7일	빅토리아	관광	6:00PM ~11:59PM	오후 6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인 밴쿠버섬 남단에 위치한 매력적인 항구도시 빅토리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단장된 울드 타운과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권(Sunken)정원이 있는 부치드 정원 등을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영주권/미국 복수 비자 필요
제8일	SEATTLE ~LA	항해	7:00AM	오전 7시에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이트 조식을 드시고 하선하십니다. -항공편으로 각 지역 도착/LAX도착 후 자유해산

- TOUR NAME: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
- TOUR DATE & ITINERARY: JUL.08 ~JUL.15, 2012 7night 8days (일정표 첨부)
- TOUR FEE:
  - Inside: IE \$1,090 / PP
  - IC \$1,125 / PP
  - Oceanview: OK \$1,250 / PP
  - OC \$1,350 / PP
  - Balcony: BD \$1,800 / PP
  - BA \$1,850 / PP
- 포함된 사항: 크루즈, 항만세, Government tax
- 불포함 사항: 항공비, 선내 서비스비, 가이드 서비스비, 기항지 옵션관광비, 공항/항구까지의 Transfer비용, 크루즈 선사 보험, 여행자 보험, 크루즈 선내 식사 이외의 식사 및 음료비, 기타 개인적인 비용
- 지불방법:
  - A. Deposit: 계약당시 \$300.00/pp
  - 2012년 3월 31일까지 예약 취소시 Deposit 전액 환불
  - B. 잔 금: 2012년 3월 31일까지 완불